

2015

연구보고서(수시과제) - 12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개선 활성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연구

김경희 · 유희정 · 김둘순 · 이솔

KWD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개선 활성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연구

---

연구책임자 : 김 경 희 (본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유 희 정 (본원 선임연구위원)

김 둘 순 (본원 연구위원)

이 솔 (본원 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이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김경희·유희정·김돌순·이솔(2015).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개선 활성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의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 연구를 통해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정책 Think-Tank이다.

## 발 간 사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도입해서 실행해 왔고 2011년에는 독립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면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이 사업 뿐 아니라 법령과 기본계획을 포함하면서 분석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그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관심이 공무원 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높아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개선안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개선이 공무원과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해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이 실천되는 과정에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는 정책연구에서 논의되어 왔던 스토리텔링을 활용해서 정부기관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운영해 온 사례를 구체적이고 역동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관차원에서 성별영향분석 대상정책을 어떻게 선정하고 성별 분석한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흥미롭고 새로운 시도였다고 봅니다.

본 연구를 위해 애써주신 연구진과 면접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과 지역의 성별영향평가센터 연구원, 지역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연구의 핵심이 되었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온 정부기관의 사례가 타 기관에 시사점을 주고 벤치마킹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성인지 역량을  
강화시키고 성평등사회를 실현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 9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 장 이 명 선

## 연구요약

### I. 서론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도입했고 2011년에 독립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면서 전환점을 맞이했다. 대상정책이 사업 뿐 아니라 법령과 기본계획을 포함하면서 분석대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에 따라 대상과제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안을 환류시키기 위해 일반시민이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개선이 공무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성평등확산을 위한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정책개선이 실천되는 과정에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운영과정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수행기관이 어떻게 대상정책을 선정하고 정책개선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했는지 그 과정을 구체적이고 역동적으로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 가. 연구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스토리텔링에 관한 논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개선, 환류 활성화에 관한 논의
  -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의의에 관한 논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발굴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이후 우수사례로 알려진 대상정책을 파악
  - 정책개선 사례를 기관유형별(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 구분하여 정책개선 사례발굴

- 스토리텔링 사례의 선정 및 분석
  - 여성가족부가 매년 선정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이 수행한 대상정책 중 환류에 성공한 사례를 선정해서 제도운영 과정을 분석
  - 민관협력이 활발하다고 알려져 있는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제도운영 과정에서 정책행위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
  - 분석대상이 되는 사례기관의 제도운영에서 나타난 정책개선 활성화 요인을 파악

## 나.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스토리텔링의 개념, 특징, 조직 차원에서의 활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 공무원 및 전문가 면접조사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공무원, 컨설턴트 등의 자문을 수행한 전문가, 제도 운영에 관여한 NGO 활동가 대상으로 정책 환류에 관한 면접조사 실시
  - 조사시기와 대상인원
    - 조사시기 : 2015년 6월 말 ~ 8월 말
    - 조사대상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연구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 전문가 자문회의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스토리텔링 구성방식, 분석대상 사례의 선정과 서술 방법,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자문회의 개최

### 3. 연구모형 및 추진체계

#### 가.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도출된 정책개선안의 생산과 정책환류가 이 제도의 운영과정과 정책행위자 중심으로 구성되고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에 관한 논의,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의의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선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정책개선이 활발하다고 판단되는 주요기관을 사례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스토리텔링 구성틀을 제시한 다음, 분석결과에 기초해서 정책개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나. 연구추진체계

이 연구는 본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연구진이 주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으면서 이루어졌다.

### 4. 기대효과

본 연구결과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한 기관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타 기관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앙 및 지방정부가 수행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운영을 과정 중심으로 상세하게 파악하고 정책행위자들이 정책개선 과정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밝힘으로써 정책개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참여기관이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책개선에 성공한 사례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서술함으로써 제도를 홍보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도구이며 정책 행위자들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호 소통하고 개입하면서 성평등을 위해 실천



활동을 하도록 요구한다. 이에 정책 행위자 중심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접근함으로써 민관협력에 기초한 제도운영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스토리텔링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에 관한 논의

### 1.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의의

스토리텔링은 화자와 청자가 이야기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특정 이야기를 매체의 특성에 맞게 조합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story’의 내용적 측면과 ‘telling’의 기술적 측면을 모두 함축하기도 한다.

정책의 스토리는 관련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정책행위자들이 이야기의 주제에 대해 상호 소통하면서 실현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을 생동감있게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스토리텔링한다는 의미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으로 기술한다는 것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운영과 정책 환류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이 수행했던 역할을 밝히는 작업이다.

### 2.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의 근거와 활성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일반 정책을 성 인지적인 관점에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일차적인 성과목표는 정책의 성평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시행령에서는 정책개선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항이 마련되었으며 그에 따라 지침에서도 정책개선이 강조되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도출된 정책개선의 내용이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도운영의 목적이 성평등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성평등

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일반 정책에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정책 행위자들의 참여와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개정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위해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젠더 거버넌스의 틀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협력의 네트워크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안된 정책개선안을 환류로 연결시키는 활동 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방식 등 변화된 공공정책이 지역사회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활동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3. 성별영향분석평가 스토리텔링의 사례선정 및 구성틀

본 연구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적극적으로 운영해 온 기관사례를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하여 정책개선이 이루어진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고자 하며, 그에 따른 스토리텔링 사례의 구성 틀은 다음과 같다.

〈표 1〉 스토리텔링 사례구성의 틀

단계	행위자(actors)		행위결과
	주체자	조력자	절차적 개선
대상과제 선정			
분석평가서 작성			
정책개선·모니터링			

5개 정부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사례분석을 위한 면접조사를 실시했고 조사기간은 2015년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되었으며 면접조사에는 총 18명이 참여했다.

### III. 사례 1: 농촌진흥청(중앙행정기관)

농진청은 분석평가서의 질의 높은 편이고 기관 자체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개선안이 실질적인 정책환류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개선 이력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시상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 우수사례에 여러 차례 선정된 바 있다.

이 기관이 운영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과정을 과제선정단계, 분석평가서 작성단계, 정책개선·모니터링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농촌진흥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단계 (과정)	행위자(actors)		행위결과
	주체자	조력자	절차적 개선
대상과제 선정	- 기관담당 공무원	- 업무담당 공무원 - 컨설턴트	1차 : 기관담당자-과제선정 목록(안) 작성 2차 : 기관담당자-컨설턴트 협의 3차 : 기관담당자-사업담당부서 최종확정
분석평가서 작성	- 업무담당 공무원	- 기관담당자 - 컨설턴트	1차 : 기관담당자(작성양식, 작성사례 샘플 제공)⇒ 업무담당자, 분석평가서 초안 작성 2차 : 과제별 대면/서면 컨설팅
정책개선·모니터링	- 기관담당 공무원	- 업무담당 공무원	1차 : 기관담당자가 환류점검 계획 예고(연초) 2차 : 업무담당자가 정책개선 환류 3차 : 환류 결과 서면보고 받음(익년 초)

### IV. 사례 2: 경기도(광역자치단체)

경기도는 우리나라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 기관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한 2005년에 기관담당부서에 ‘젠더 전문가’를 배치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전담하게 했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을 지원할 젠더 전문가 집단으로서 ‘경기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2008년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안에 설치하였다.

이러한 행정환경과 인적환경을 가진 경기도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적용대상을 정부사업 뿐 아니라 공공기관 사업에 확대시켰으며 2013년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기관이 운영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과정을 과제선정단계, 분석평가서 작성단계, 정책개선·모니터링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단계 (과정)	행위자(actors)		행위결과
	주체자	조력자	절차적 개선
대상과제 선정	- 기관담당 공무원	- 업무담당 공무원 - GIA센터원 - 컨설턴트	1차 : 기관담당자-과제선정 목록(안) 작성 2차 : 기관담당자-GIA센터 및 컨설턴트 협의 3차 : 기관담당자-사업담당부서 최종확정
분석평가서 작성	- 업무담당 공무원	- GIA센터원 - 컨설턴트	1차 : 업무담당자 소규모 집합교육 및 대면 컨설팅 실시, 분석평가서 초안 작성 2차 : 과제별 대면/서면 컨설팅 제공
정책개선·모니터링	- 기관담당 공무원	- 업무담당 공무원 /공공기관 사업담당자 - 컨설턴트	1차 : 기관담당자가 환류점검 계획 예고(연초) 사업과제별 정책개선안 정리해서 업무 담당자에게 제공 2차 : 기관담당자가 환류점검 계획 2차 예고 3차 : 환류 결과 서면보고 받음(연말)

## V. 사례 3: 대전광역시(광역자치단체)

대전광역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도출된 정책개선을 위해 공무원과 젠더 전문가 뿐 아니라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이 기관의 성 주류화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도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점이 큰 특징이다. 시의원이 지속적으로 대전의 성 주류화 정책 추진결과를 점검하고, 해당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운영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기관은 여성가족부가 매년 선정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으로 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다. 이후에 대전시의 여성정책연구기관인 대전여성가족센터는 2012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포함한 성 주류화의 확산을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 추진과정을 점검하는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정책환류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이 기관이 운영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과정을 과제선정단계, 분석평가서

작성단계, 정책개선·모니터링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

단계 (과정)	행위자(actors)		행위결과
	주체자	조력자	절차적 개선
대상과제 선정	- 기관 담당자	- 업무 담당자 - 젠더 전문가	1차 : 기관담당자-업무담당자에게 대상과제 선정 체크리스트 작성 요청 2차 : 기관담당자-컨설턴트 협의 3차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최종확정
분석평가서 작성	- 업무 담당자	- 젠더 전문가	1차 : 업무담당자가 분석평가서 초안 작성 2차 : 컨설턴트가 서면 컨설팅 제공 3차 : 컨설턴트가 대면 컨설팅 제공
정책개선·모니터링	- 공무원, NGO	- 의원 - 젠더 전문가	1차 : 업무담당자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 개선안 도출, 정책개선 현황 제출 2차 : 평생교육사업, 도시공원사업 등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 결과, 정책개선의 성과 파악 3차 : 기관담당자가 정책개선 실적 취합

## VI. 사례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기초자치단체)

서대문구는 서울시가 젠더 거버넌스에 기초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활성화 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제시된 정책개선안을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실질적인 정책 환류를 이루어낸 것이 큰 특징이다. 이 기관이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한 정책개선안은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에 포함된 바 있다.

해당사업은 ‘자전거 이용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정책개선안에는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한 공용 자전거 구입, 여성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자전거 거치대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지역에서는 동일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3년 연속하면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이 지속적으로 정책개선 이행 여부를 확인하면서 정책환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 기관이 운영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과정을 과제선정단계, 분석평가서 작성단계, 정책개선·모니터링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

단계 (과정)	행위자(actors)		행위결과
	주체자	조력자	절차적 개선
대상과제 선정	- 기관 담당자	- 업무 담당자 - 젠더 전문가	1차 : 기관담당자-사업담당자 협의 2차 : 기관담당자-컨설턴트 협의 3차 : 과제선정위원회가 최종확정
분석평가서 작성	- 업무 담당자	- 젠더 전문가	1차 : 업무담당자가 분석평가서 초안 작성 2차 : 컨설턴트가 대면 컨설팅 제공 3차 : 컨설턴트가 서면 컨설팅 제공
정책개선·모니터링	- 공무원, NGO	- 의원 - 젠더 전문가	1차 : 업무담당자가 정책개선안 제시 -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우수사례(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 2차 : NGO 모니터링 결과, 개선안 제안 - 여성친화적 자전거 구입, 거치대 설치 등 3차 : NGO 모니터링 결과, 관련 조례의 개정 요구

## VII. 결론: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스토리텔링하다

본 연구는 정부기관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책행위자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으며, 정책개선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그 과정을 스토리텔링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서 도출한 정책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 1. 과제선정단계: 주요정책의 선정과 기관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기관별로 대상과제의 선정절차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기관담당자가 대상과제 선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대상과제로 선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성별관련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할 경우 의미있는 정책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관담당 공무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담당자의 업무를 진문직위제로 지정해서 최소 4년간 연속해서 근무하도록 하거나 젠더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해서 기관담당자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2. 분석평가서 작성단계: 업무담당자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전문가의 체계적인 지원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업무담당 공무원의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력이 관건이다. 분석대상 사업에서 어떠한 성별차이가 있는지 파악한 다음 적절한 정책개선안이 제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무담당자의 성인지력이 향상되도록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과 컨설턴트간의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컨설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3. 정책개선·모니터링 단계: 정책개선 이행점검과 민관협력의 확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안은 단년도에 정책개선이 이행되기 보다는 몇 년간 지속되며 시민단체가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개선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볼 때, 정책개선의 실질적인 성과는 일반 시민이 정책개선의 결과를 어느 정도 체감하는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성과의 핵심은 정책행위자가 아닌 정책 수혜자중심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향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스토리텔링은 정책 수혜자를 포함한 연구를 통해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가. 연구내용 .....	5
나. 연구방법 .....	6
3. 연구모형 및 추진체계 .....	7
가. 연구모형 .....	7
나. 연구추진체계 .....	9
4. 기대효과 .....	10
II. 스토리텔링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에 관한 논의 .....	11
1.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의의 .....	13
가. 스토리텔링의 개념 .....	13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사례 구성에서 스토리텔링의 활용 .....	14
2.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의 근거와 활성화 .....	15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의 근거 .....	15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의 활성화 .....	17
3. 성별영향분석평가 스토리텔링의 사례선정 및 구성틀 .....	19
III. 사례 1: 농촌진흥청(중앙행정기관) .....	23
1. 여성농업인의 니즈를 찾아서 .....	25
2. [과제선정 단계] 연구개발(R&D)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될 수 있을까? .....	27
3. [분석평가 단계] 실현 가능한 분석평가서 작성하기 .....	30



4. [정책개선·모니터링 단계] 책임 있는 기관담당자의 열정이 돋보이다 ...	32
<b>IV. 사례 2: 경기도(광역자치단체)</b> .....	39
1. 선도적인 광역자치단체 .....	41
2. [과제선정 단계] 경기도의 주요 사업에 성평등을 허하라! 31개 시·군의 공통과제 훑아보기 .....	43
3. [분석평가 단계] 교육의 효과가 빛난다 .....	47
4. [정책개선·모니터링 단계] 젠더 전문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힘 ...	51
<b>V. 사례 3: 대전광역시(광역자치단체)</b> .....	55
1. ‘공무원-컨설턴트-시민’의 풀뿌리 젠더 거버넌스를 위하여 .....	57
2. [과제선정 단계] 자체적인 체크리스트 개발과 공통과제 선정 .....	60
3. [분석평가 단계] ‘법령’이나 ‘계획’이나 ‘사업’이나, 맞춤형으로 평가한다 .....	67
4. [정책개선·모니터링 단계] 시민참여에서 평생교육까지, 성평등 감수성을 레벨업하다 .....	73
<b>VI. 사례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기초자치단체)</b> .....	81
1. 세 바퀴로 달리는 성평등 자전거 .....	83
2. [과제선정 단계] 과제선정위원회를 만들다 .....	85
3. [분석평가 단계] 자전거도 성 중립적이지 않다, 성별 요구의 A to Z ...	88
4. [정책개선·모니터링 단계] 더 좋은 예산, 더 좋은 의회는 있다! .....	91
<b>VII. 결 론: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스토리텔링하다</b> .....	99
1. 과제선정단계 : 주요정책 선정과 기관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	101
2. 분석평가서 작성단계 : 업무담당자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전문가의 체계적인 지원 .....	103
3. 정책개선·모니터링 단계: 정책개선 이행점검과 민관협력의 확대 ...	104



■ 참고문헌 .....	107
■ Abstract .....	111

## 표 목 차

<표 II-1> 스토리텔링 사례구성의 틀 .....	20
<표 II-2> 면접참여자의 인적사항 .....	21
<표 III-1> 농촌진흥청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제 수 .....	25
<표 III-2> 농촌진흥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	27
<표 III-3> 농기계훈련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예시(2010년) .....	32
<표 IV-1>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	43
<표 IV-2> 경기도 업무담당공무원 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프로그램 ..	48
<표 V-1>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수의 변화(2005-2014) .....	57
<표 V-2> 대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 .....	60
<표 VI-1>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 .....	84
<표 VI-2>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2015) .....	87
<표 VI-3> 연도별 여성친화형 자전거 구입현황 .....	92
<표 VI-4> 서대문구의 ‘자전거이용시설물’ 모니터링 지표 .....	93
<표 VII-1>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절차 .....	102
<표 VII-2>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과정 .....	104
<표 VII-3>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모니터링 절차 .....	105

## 그림 목 차

[그림 I -1] 2005-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현황 .....	3
[그림 I -2] 연구모형도 .....	9
[그림 I -3] 연구추진체계 .....	10
[그림 III-1] 농촌진흥청 정책개선 이력관리 예시 .....	36
[그림 IV-1]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담당자 대상 교육 및 컨설팅 현장 추상도 .....	49
[그림 V-1]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	64
[그림 VI-1] 서대문구 행정조직도 .....	85
[그림 VI-2] 서대문구의 자전거 거치대 교체 전과 후 사진 .....	94
[그림 VI-3] 서대문구의 자전거 거치대 위치도 .....	95



#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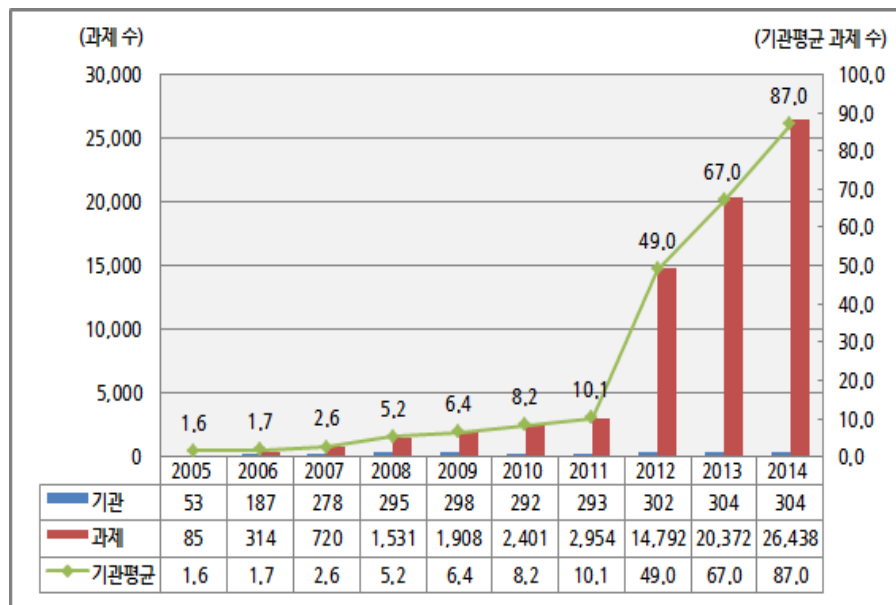
##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3. 연구모형 및 추진체계	7
4. 기대효과	10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면서 수많은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해 왔다. 더욱이 2011년에 독립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면서 대상정책이 사업 뿐 아니라 법령과 기본계획을 포함하면서 분석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그에 따라 대상과제 수가 크게 증가했다.



출처: 여성가족부(2015b).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그림 I-1] 2005-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현황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참여기관 및 과제 수의 변화를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된 2012년에는 대상과제의 수가 2,954개에서 2014년에 26,438개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여성발전기본법이 2002년 말에 개정되면서 근거 규정을 갖게 되었고 2005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 당시에는 이 제도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중 53개만이 참여했고 85개 과제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했다.



#### 4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개선 활성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연구

2006년부터는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면서 참여기관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대상과제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가 제·개정하는 법령이 성별영향 분석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제 수가 많아졌고 그에 따라 기관평균 대상 과제의 수도 늘어나 2014년에는 기관평균 과제수가 87개이다.

이와 같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과제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담당 공무원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지만 분석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안을 정책환류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정책개선 활성화를 위해 매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과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정책개선 사례를 발굴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를 종합결과보고서에 담아 소개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12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100가지 사례집을 만들면서 이 제도를 통해서 어떠한 정책개선의 성과가 있는지를 홍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반 정책을 성인지 관점에서 분석할 경우 어떠한 정책개선 사항이 도출될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그러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운영이 기관차원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바꿔말해 어떠한 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되고 그 과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분석되는지를 알기 어려웠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안이 실제로 정책개선에 반영되는 과정에서는 정책행위자들이 어떠한 경로로 개입했으며 어떻게 정책개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정책개선에 반영했는지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유사한 성분석 제도를 시행해 온 캐나다는 이 제도가 성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된 분석도구이며,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것을 강조해 왔다.<sup>1)</sup>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안을 정책환류로 연결시키기 위해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거나 성 주류화 포럼과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무원과 시민사회활동가를 포함한 정책 행위자들이 나서서 지역 사회

1) Status of Women Canada(2015). “What is GBA+?”. <http://www.swc-cfc.gc.ca/>(검색일자 2015.8.5).

안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는 활동으로<sup>2)</sup> 이어지고 있다.

이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의 내용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정책행위자들에 의해서 제시되었는지 과정 중심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 제도에 대한 지역사회 내 관심이 높아지고 일반 시민이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이 공무원 뿐 아니라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일반 시민들에게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운영과정을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고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토리텔링이 정책연구의 한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제도를 운영하면서 알리고자 하는 바를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기관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을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하고 이를 사례 분석함으로써 정책개선의 과정을 역동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 가. 연구내용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스토리텔링에 관한 논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개선, 환류 활성화에 관한 논의
  -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의의에 관한 논의

2) 대전지역의 성 주류화 실행주체(RGPN : Regional Gendermainstreaming Practice Netwokr)의 형성과 활동은 201년 대전발전연구원의 여성가족정책센터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대전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는 연구를 공동 수행하면서 처음 시도되었다(박노동 외, 2012: 25-26).

## 6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개선 활성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연구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발굴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이후 우수사례로 알려진 대상정책을 파악
  - 정책개선 사례를 기관유형별(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정책개선 사례발굴
- 스토리텔링 사례의 선정 및 분석
  - 여성가족부가 매년 선정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이 수행한 대상 정책 중 환류에 성공한 사례를 선정해서 제도운영 과정을 분석
  - 민관협력이 활발하다고 알려져 있는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제도운영 과정에서 정책행위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
  - 분석대상이 되는 사례기관의 제도운영에서 나타난 정책개선 활성화 요인을 파악

## 나.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스토리텔링의 개념, 특징, 조직 차원에서의 활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 공무원 및 전문가 면접조사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공무원, 컨설턴트 등의 자문을 수행한 전문가, 제도 운영에 관여한 NGO 활동가 대상으로 정책환류에 관한 면접조사 실시
  - 조사시기와 대상인원
    - 조사시기 : 2015년 6월 말 ~ 8월 말
    - 조사대상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연구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 전문가 자문회의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스토리텔링 구성방식, 분석대상 사례의 선정과 서술방법,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자문회의 개최

### 3. 연구모형 및 추진체계

#### 가.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도출된 정책개선 사례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하는데 연구목적을 둔다. 이와 같은 시도를 하는 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도출된 정책개선안의 생산과 정책환류가 이 제도의 운영과정과 정책행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인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운영하면서 수행기관이 무엇을 변화시켰으며 제도운영의 각 단계별로 정책행위자들이 어떻게 개입했고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거나 민관협력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에 이 제도를 확산시키고자 했던 기관의 사례를 심층분석해서 정책개선안의 생산과 환류과정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이 계획되고 수행되는 과정은 행위자(actors)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수행과정은 제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행위자들이 누가, 언제, 어떻게 그 제도에 관여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 행위자들이 정책을 수행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특히 정책개선안이 환류로 연결되는 과정은 정책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안에 대해 공무원, 전문가, NGO 활동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다르고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스토리텔링은 그러한 의견 차이가 공존하는 가운데 정책개선안에 대한

## 8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개선 활성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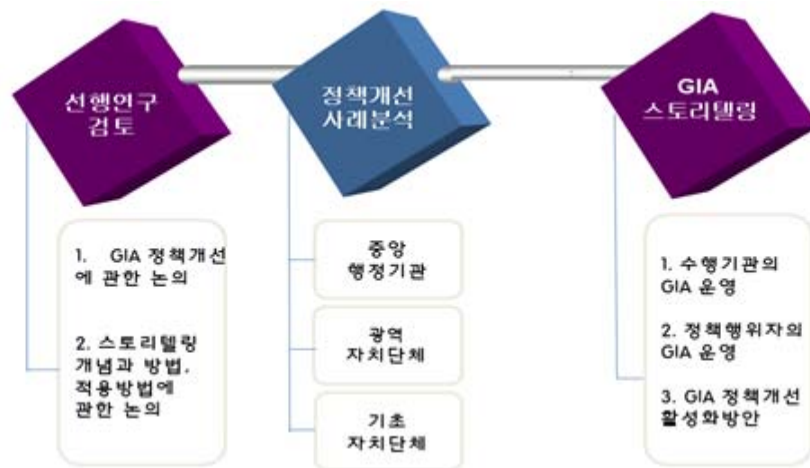
의견수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다.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수행은 공무원이 주도하고 있지만 정책환류의 과정은 민관협력에 의해서 수행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즉,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하는 주체는 그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절차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개선을 환류하는 과정, 정책개선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이력관리 방식은 개별 정책행위자가 아닌 해당 기관에서 정책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조직차원에서 행해지는 절차이며 과정인 것이다.<sup>3)</sup>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수행결과는 분석보고서의 작성, 종합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받는 교육, 컨설턴트와 공무원이 소통하면서 경험한 내용,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정책을 성 중립적으로 바라보았던 조직 구성원의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인 것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스토리텔링은 조직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하고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 중립적인 일반정책을 성 인지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개선을 도출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관점을 공무원들이 이해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성평등한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은 성 주류화 전략의 핵심적 가치이며 목표이기도 하다. 널리 알려진 대로, 성 주류화는 성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이며 이것은 여성을 주류화하는 관점, 성평등을 주류화하는 관점, 남성 중심의 주류 문화를 성평등한 문화로 전환시키기 위한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성 주류화의 특성을 조직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성평등의 향상이 일반정책에 왜 필요한지를 조직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목적인 성평등 개념의 운영과 적용에 관한 스토리가

3) 조직수준에서 조직 스토리(organizational story)는 과거의 관리행동, 종업원의 상호작용, 또는 조직 내 조직간 사건들을 이야기 형태로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조직의 규범이나 가치, 목표, 업무방식, 변화 등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며 전달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된다. 조직에서 스토리텔링은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Wende & Haghirian, 2009: 6; 김구, 2013: 8-9에서 재인용).

알기 쉽게 전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도된 본 연구의 모형도는 [그림 I-2]와 같다.



[그림 I-2] 연구모형도

## 나. 연구추진체계

본 연구는 본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연구진이 주관하면서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공무원, 정부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으면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연구의 진행과정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개선 사례선정과 사례 분석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정책개선안의 생산과 환류과정이 어떻게 구조화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새롭게 시도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스토리텔링 연구가 어떠한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부여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 소통할 수 있는 연구 추진 체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연구추진체계를 [그림 I-3]으로 나타내었다.

## 10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개선 활성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연구



[그림 1-3] 연구추진체계

### 4. 기대효과

이 연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활성화를 위해 정책행위자들이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연구결과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한 기관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타 기관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앙 및 지방정부가 수행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운영을 과정 중심으로 상세하게 파악하고 정책행위자들이 정책개선 과정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밝힘으로써 정책개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참여기관이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책개선에 성공한 사례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서술함으로써 제도를 홍보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도구이며 정책 행위자들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호 소통하고 개입하면서 성평등을 위해 실천 활동을 하도록 요구한다. 이에 정책 행위자 중심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접근함으로써 민관협력에 기초한 제도운영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 스토리텔링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에 관한 논의

1.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의의 13
2.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의 근거와  
활성화 15
3. 성별영향분석평가 스토리텔링의 사례선정  
및 구성틀 19





## 1.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의의

### 가. 스토리텔링의 개념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화자와 청자가 이야기(story)로 상호작용(telling)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특정 이야기를 매체의 특성에 맞게 조합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story’의 내용적 측면과 ‘telling’의 기술적 측면을 모두 함축하기도 한다(한광식 외, 2011: 109). 이것은 스토리를 표현하는 기법이나 과정을 지칭하는 용어으로써 일반적으로 “인물, 사건, 배경을 갖추어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기술해 가는 즉, 사건의 나열로 짜여진 스토리를 표현하는 말하기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주경희, 2011: 646). 따라서 스토리텔링은 등장인물과 배경이 있는 어떤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술하는 방식을 일컫게 되는데 이야기의 내용이 되는 부분을 ‘스토리’라고 한다면 스토리를 진술하는 형식을 ‘텔링’, 즉 담화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은 스토리와 담화, 그리고 스토리가 담화로 변화하는 과정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채영희 외, 2010: 114).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정책영역에서 조직사례를 분석할 때 활용하고자 한 논의를 살펴보면(윤건수, 2005; 김구, 2013), 조직 내부의 지식생산의 구성과 행위자 중심의 스토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지식은 개인, 집단, 조직, 국가, 사회 등 모든 수준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관리되고 있다. 지식이 사회 및 국가 운영의 기축원리가 되는 지식사회에서 지식은 현대조직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공조직에서 지식을 관리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김구, 2013: 1). 이것은 특정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직 내 구성원들이 업무와 관련한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고 공유하면서 전달하는 방식을 어떻게 구조화하는지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

또한 정책의 스토리는 관련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정책의 내용이 분명하고 시작단계와 종결단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면 사건 중심의 스토리가 설명력이 높을 것이다. 하지만 행위자들의 관점과 영향력이 강조된다면 행위자 중심

## 14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개선 활성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연구

의 스토리가 더 설득력이 있다. 하나의 정책이 종결되면서 그 효과가 검증되기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진 중인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중심의 스토리가 도움이 될 것이다(윤건수, 2005: 77).

이것은 조직 안에서 지식이나 정보가 이야기하기의 형태로 전달될 경우 청중(관객, 지역주민)과 이야기 하는 사람들(자치단체장, 국회의원, NGO단체, 지식인 집단 등)이 이야기의 주제에 대해 상호 소통하면서 실현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을 생동감있게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사례 구성에서 스토리텔링의 활용

스토리텔링은 스토리에 텔링이라는 동사성 명사가 부가된 합성어로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거나 이야기를 남들에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책 스토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운동을 과정 중심으로 설명할 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진다. 이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안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환류로 연결되는지를 그 경로와 정책담론을 파악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즉,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정책개선안을 도출한 공무원, 수행기관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분석평가를 통해 정책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했던 컨설턴트, 지역사회에서 정부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시민단체 활동가 등의 정책 행위자들이 만들어내는 의미있는 소통의 내용을 관찰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운영의 과정이 기관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공무원을 포함한 정책행위자들에게 공유될 경우 정책개선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례분석에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운영과정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은 다양한 행위주체들 사이에서 성별영향분석이 이루어지고 평가되는 과정에서 성평등한 정책개선에 관한 논의가 공론화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분석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던 기관이거나 지역사회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민관협력의 젠더거버넌스를 적극 실천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성평등 정책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했던 정부기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운영의 과정을 분석하는데 스토리텔링을 활용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제도운영의 과정을 분석하면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하고자 한다는 의미는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으로 기술한다는 것이며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운영과 정책환류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이 수행했던 역할을 밝히는 작업이다.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운영된 과정을 스토리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또한 참여기관이 지난 10년간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단계별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 2.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의 근거와 활성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널리 알려진 대로 일반 정책을 성 인지적인 관점에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일차적인 성과목표는 정책의 성평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성별영향분석평가시행령」에서는 정책개선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항이 마련되었으며 그에 따라 지침에서도 정책개선이 강조되었다.

###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의 근거

#### 1)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명시된 정책개선

2011년에 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와 시행령 제6조(분석평가결과의 제출)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같은 법 제9조 1항에 의

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9조 2항에서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환류를 위해 성인지 예산제도와 연계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전년도 분석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재정이 수반되는 대상정책에 관해서는 해당 회계연도의 성인지 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안이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년에 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4.3.24.) 제12조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에 따른 정책개선 이행점검에 관한 관심이 정부기관과 국회 모두에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개정된 같은 법(2015.2.3.) 제3조 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공무원과 시민사회 활동가 등 정책행위자들이 협력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정책개선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와 같이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시행령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책임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이 제도의 운영이 민관협력에 기초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 명시된 정책개선

여성가족부는 2005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지침을 마련하여 수행기관에 제공했으며 2008년부터 지침을 통해 분석평가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할 것을 강조해 왔다(여성부, 2008a). 이 지침에서는 “2007년에 추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의 2008년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그 시기부터 매년 지침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한 보고서를 수행기관이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매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과 우수사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정책개선 사항을 고려하고 그 비중을 높이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2년부터 크게 달라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서는 분석평가 결과반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평가대상 정책별로 법령과 계획, 사업별로 추진과정에 맞추어서 각각의 분석평가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 자체개선한 사례에 대한 추진실적은 ‘기관별 종합결과보고’등을 통해 현황 파악하도록 하는 한편, 분석평가서 검토결과가 개선의견으로 통보된 경우에는 반영결과 제출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개선의견 수용 여부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결과보고서에 ‘개선실적 재점검’을 위한 작성항목을 포함시킴으로써 계획·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 중 개선예정이거나 개선완료가 되지 않은 정책을 대상으로 실제 개선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6-7).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 나타난 이러한 변화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개정을 계기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정책개선 이행실적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의 활성화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중요

## 18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개선 활성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연구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도출된 정책개선의 내용이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개선에 대한 모니터링은 분석평가를 수행한 정부가 직접 하기도 하지만 기본계획과 사업의 경우 정책개선이 단번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개정하는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지고 분석평가 결과를 법령(안)에 반영하기 때문에 해당 법령이 제·개정되는 과정에서 바로 반영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주체가 되어 정책개선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기본계획과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이전에 수행되었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안이 단년도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행점검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해당사업을 담당한 공무원들이 인사발령에 의해 타 부서로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기본계획과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개선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도운영의 목적이 성평등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성평등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일반 정책에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참여와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누가 어떤 관점에서 성평등을 인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이론가들은 이 제도가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참여를 배제한 채 정부 주도로 운영될 경우 성평등 개념이 자칫 왜곡되거나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Verloo, 2001; Bacchi, 2009). 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포함한 성 주류화 정책이 여성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될 경우 성평등 개념이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실행과정에서 여성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성평등 개념이 적용되지 못한 채 성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Squires, 2010). 이에 UN과 EU 등의 국제 기구와 성 주류화 이론가들은 젠더 거버넌스에 기초한 제도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Hanan, 2008). 전통적 행정(government)과 대비되는 거버넌스(governance)는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한

## II. 스토리텔링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에 관한 논의 ••• 19

정부와 시민사회, 다양한 집단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치를 의미한다. 성 주류화에서 젠더 거버넌스의 실천은 성 인지적인 관점을 거버넌스 체계에 통합시키는 것으로 성 주류화의 실행주체인 공무원, 젠더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의원 등이 협력하는 체계를 의미한다(김경희 외, 2010: 372-373).

우리나라도 2015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개정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위해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젠더 거버넌스의 틀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협력의 네트워크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안된 정책개선안을 환류로 연결시키는 활동 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방식 등 변화된 공공 정책이 지역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정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모니터링하는 활동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3. 성별영향분석평가 스토리텔링의 사례선정 및 구성틀

앞서 살펴본 대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제시된 정책개선안이 환류로 연결되는 과정이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관점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해 온 사례를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구성하여 정책개선이 이루어진 과정을 단계별로 보이게 하겠다. 이에 따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수행기관은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 어떤 대상정책을 분석평가 대상과제로 선정했고 그 사유는 무엇이었는가?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가?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대상사업은 어떻게 변화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하면서 정책행위자들은 무엇을 경험했는가? 넷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제시된 정책개선이 환류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가? 정책행위자들 사이에서 어떠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는가?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사례는 총 4개이며 중앙행정기관 1개, 광역자치단체 2개, 기초자치단체 1개이다. 사례 선정의 기준은 첫째, 여성



## 20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개선 활성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연구

가족부가 매년 선정하는 우수기관 또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우이며 둘째, 지역사회에서 민관협력의 젠더 거버넌스에 기반을 두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활발하게 운영하는 경우이다. 농촌진흥청과 경기도는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대전광역시와 서대문구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사례구성의 틀은 참여기관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대상과제의 선정과정으로 누가 어떻게 대상과제를 선정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하고 정책개선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담당공무원은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면서 누구와 협의를 했고 누구로부터 자문을 받았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다. 셋째, 분석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안을 누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정책환류를 운영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제도운영 과정에서 행위주체가 누구이고 조력자가 누구이며 관계자가 누구인지를 정책 행위자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와 같은 행위가 무엇을 변화시켰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표 II-1〉 스토리텔링 사례구성의 틀

단계	행위자(actors)		행위결과
	주체자	조력자	절차적 개선
대상과제 선정			
분석평가서 작성			
정책개선·모니터링			

4개 정부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사례분석을 위한 면접조사를 실시했고 조사기간은 2015년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2개월간 진행되었으며 면접은 대면 또는 전화면접을 병행했고 총 18명이 참여했다. 조사했던 면접참여자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Ⅱ. 스토리텔링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에 관한 논의 ●●● 21

〈표 Ⅱ-2〉 면접참여자의 인적사항

번호	성명(가명)	역할	성별	GIA관련 경력	면접 일시
1	김 사무관	기관담당자	남	8개월	2015. 6. 26 2015. 8. 18
2	김 컨설턴트	센터 연구원	여	7년	2015. 7. 2
3	윤 주무관	업무담당자	남	8년	2015. 8. 18
4	이 주무관	업무담당자	남	3년 3개월	2015. 8. 18
5	홍 총장	여성농민단체활동가	여	-	2015. 9. 11
6	안 주무관	기관담당자	여	3년 8개월	2015. 7. 3 2015. 8. 13
7	손 센터장	성별영향평가센터장	여	9년	2015. 8. 13
8	이 컨설턴트	센터 연구원	여	1년 6개월	2015. 8. 13
9	정 주무관	업무담당자	남	1년	2015. 8. 27
10	백 주무관	기관담당자	여	1년 7개월	2015. 8. 31
11	임 컨설턴트	컨설턴트	여	4년	2015. 8. 31
12	주 센터장	성별영향평가센터장	여	4년	2015. 8. 31
13	정 컨설턴트	센터 연구원	여	4년	2015. 8. 31
14	김 담당자	시민모니터링단 운영담당	여	4년	2015. 8. 31
15	장 사무관	기관담당자	여	1년 6개월	2015. 8. 6
16	고 주무관	기관담당자	여	2년	2015. 8. 6
17	서 의원	기초의회 의원	여	5년	2015. 8. 21
18	황 컨설턴트	컨설턴트	여	8개월	2015. 8. 6



www.kwdl.or.kr

### III

## 사례 1: 농촌진흥청(중앙행정기관)

1. 여성농업인의 니즈를 찾아서 25
2. [과제선정 단계] 연구개발(R&D)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될 수 있을까? 27
3. [분석평가 단계] 실현 가능한 분석평가서  
작성하기 30
4. [정책개선·모니터링 단계] 책임 있는  
기관담당자의 열정이 돋보인다 32



## 1. 여성농업인의 니즈를 찾아서

농촌진흥청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자체적인 규정을 갖고 있지는 않으며, 여성가족부가 매년 제공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에 따라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촌진흥청은 중앙행정기관들 가운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관 중 하나다. 예를 들면 2005년 이래 매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제 수가 중앙행정기관의 기관별 평균 과제 수보다 대체로 많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중앙행정기관이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매년 평균 3개 정도 추진하는 데 비해 농촌진흥청은 5~7개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수행했다.

〈표 Ⅲ-1〉 농촌진흥청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제 수

(단위: 개)

구분	'05	'06	'07	'08	'09	'10	'11 <sup>a)</sup>	'12	'13	'14
중앙 (기관평균)	1.3	1.4	2.0	2.4	2.0	2.2	3.9	3.4	3.4	3.3
농진청	2	1	2	2	3	5	2	5	7	6

주: a) 2011년에는 사업 분석평가 대상과제를 각 기관에서 선정하지 않고 여성가족부가 지정해서 통보함에 따라 과제 수가 상대적으로 적음.

자료: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각 년도(2006~2015) 참고하여 작성.

이 외에도 농촌진흥청은 자체적으로 연구 예산을 확보하여 매년 1개 과제씩 전문가가 심층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자체 예산으로 실시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 사업을 보면, 신기술 시범사업, 이공계대 인턴십 운영 사업, 자원 활용 기술보급 사업,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여성친화적 중소가죽농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연구는 얼핏 성별과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정책에서 젠더 이슈를 찾아내고 성별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정책이 성평등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여성가족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가 아닌 기관 자체적으로 연구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농촌진흥청의 제도 추진 의지가 돋보인다.

무엇보다 이 기관의 특징은 연구 인력이 많아 업무담당자가 작성한 분석평가서의 질이 높은 편이고, 기관 자체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개선안이 실질적인 정책 환류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개선 이력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여성가족부가 시상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우수사례에 여러 차례 선정된 바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2015).

농촌진흥청은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5년부터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관담당부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처음 실시되기 시작할 때부터, 성평등 정책 실현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을 인지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태도를 보였다(김돌순, 2008: 103-106). 이러한 수용적 태도는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연구자가 면접한 2015년 기관담당자인 김 사무관에 따르면, 올해 초에 기관담당자 자리를 ‘전문관’으로 지정하였으며 향후 최소 4년 동안은 동일인이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기관담당자의 제도 추진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책개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적 토대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

농촌진흥청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는 전반적인 과정은 대체로 <표 III-2>와 같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 과정에 참여하는 핵심 주체는 기관담당자가 중심 역할을 하고, 업무담당자와 컨설턴트가 협력하는 시스템이다.

농촌진흥청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추진과정의 특징 및 정책개선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는 농촌진흥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기관담당 공무원, 업무담당 공무원 2인, 컨설턴트, 여성농업단체 활동가 1인을 심층 면접하였다. 면접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농촌진흥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Ⅲ-2〉 농촌진흥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단계 (과정)	행위자(actors)		행위결과
	주체자	조력자	절차적 개선
대상과제 선정	- 기관담당 공무원	- 업무담당 공무원 - 컨설턴트	1차 : 기관담당자-과제선정 목록(안) 작성 2차 : 기관담당자-컨설턴트 협의 3차 : 기관담당자-사업담당부서 최종확정
분석평가서 작성	- 업무담당 공무원	- 기관 담당자 - 컨설턴트	1차 : 기관담당자(작성양식, 작성사례 샘플 제공)⇒ 업무담당자, 분석평가서 초안 작성 2차 : 과제별 대면/서면 컨설팅
정책개선·모니터링	- 기관담당 공무원	- 업무담당 공무원	1차 : 기관담당자가 환류점검 계획 예고(연초) 2차 : 업무담당자가 정책개선 환류 3차 : 환류 결과 서면보고 받음(익년 초)

## 2. [과제선정 단계] 연구개발(R&D)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될 수 있을까?

농촌진흥청은 2005년 이래 지금까지 대상과제 선정 방식이 일관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기관담당자는 여성가족부가 매년 제공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 근거하여 대상사업 후보를 선정하고, 컨설턴트에게 자문을 받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최종 선정한다.

기관담당자 김 사무관에 따르면, 2015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을 7개 선정하였다고 한다.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여성가족부, 2015)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대상과제 선정기준은 ‘국정과제나 연두업무보고, 공약·지시사항 등 해당기관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중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선정하되, 신규과제를 30% 이상 발굴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국정과제 중 2015년도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과 성인지예산 사업 중 지속적으로 성과 목표에 미달성한 사업은 반드시 선정’하도록 하였다. 김 사무관은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컨설턴트에게 컨설팅을 요청했다.

김 사무관이 가장 크게 고민한 사항은 신규과제를 30% 이상 발굴하라는



지침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농촌진흥청은 기관의 특성상 상당수 사업이 농업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이다. 그리고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지도교육 사업이 일부 있는데, 이들 사업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분석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김 사무관은 신규과제 발굴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사업을 선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성격의 사업이 대상과제로 적절할 수 있을까?

김 컨설턴트도 김 사무관의 이러한 고민에 선뜻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웠다.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컨설팅 지원을 하고 관련 자료를 접해왔지만, 국내에서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사례를 목격한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연구개발(R&D) 사업도 남녀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Barun Gurung·Harriet Menter, 2004;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2007; 2013). 하지만 만약 연구개발(R&D) 사업을 대상과제로 선정한다 해도 현재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및 작성 양식을 활용해서 이를 분석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사업 대상자, 사업 수혜자, 성별격차 원인 등을 분석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 컨설턴트는 연구개발(R&D) 사업을 대상과제로 선정할 경우 예상될 수 있는 난관에 대해 김 사무관과 논의하였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관담당자인 김 사무관과 김 컨설턴트는 연구개발(R&D) 사업을 신규 대상과제로 선정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는 연구개발(R&D) 사업도 성별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절한지를 한번쯤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를 시범적으로 시도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만약 대상과제로 적절하다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면, 향후 농촌진흥청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신규과제 발굴을 연구개발(R&D) 사업에서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영역의 확장을 의미

### Ⅲ. 사례 1: 농촌진흥청(중앙행정기관) ●●● 29

하는 것으로써, 분명히 신선한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현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가 연구개발(R&D) 사업을 분석하기에 적절한지를 검토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김 사무관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과제 30%를 농업 연구개발(R&D) 사업에서 선정하기로 하고, 1차 성별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중에서 협조가 가능한 사업담당자에게 해당사업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로 선정하는데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설득하는 과정에서는 “연구주제 개발이나 연구계획을 설계할 때도 성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연구계획 설계 과정에서 임상실험을 계획할 때, 실험 대상을 남녀불문 100명으로 하는 것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과는 연구 결과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김 사무관은 2015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으로 총 7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에서 3개(42.9%)가 연구개발(R&D) 사업이면서 신규과제이고<sup>4)</sup>, 4개는 인력양성 및 교육 등에 관한 사업으로 주요 정책에 관한 것이었다.

연구자가 면접 조사한 ‘농기계훈련사업’ 업무담당자 윤 주무관은 2010년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기관담당자인 김 사무관으로부터 분석평가 대상과제로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농기계 사용자는 남성이고, 여성은 교육을 받더라도 실제 농업 현장에서 농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니 여성을 교육시켜도 교육 효과가 없을 것 아닌가.’ 그래서 대상과제로 선정될 경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고민스러워서 갈등을 했다고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도 정책개선안을 제시할 만한 내용이 없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사무관으로부터 농기계훈련사업에 대한 성인지 분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열정적인 설명을 듣고는 이 사업을 대상과제에 포함시키는데 동의하였으며 분석평가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4) ‘눈큰흑찰 이용 비만과 황반변성 예방 소재 특성 연구’, ‘도시녹화용 빗물정원 및 생태연못 식재기술 개발’, ‘인삼을 이용한 골다공증 개선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

### 3. [분석평가 단계] 실현 가능한 분석평가서 작성하기

대상과제가 선정되면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이어진다. 농촌진흥청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추진되고 있었다.

첫 번째 단계는 기관담당자가 업무담당자에게 분석평가서 작성 예시와 작성 양식을 제공하면서 과제별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연구자가 면접 조사한 ‘농기계훈련사업’<sup>5)</sup> 담당자는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성별요구도 분석이나 성별형평성 분석 같은 두세 개 지표가 작성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이 지표들은 그동안 많은 공무원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작성하기도 어렵다고 했던 것들이다(김둘순 외, 2012; 2013; 최유진 외, 2014). 예를 들면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차이에 따른 정책 요구가 차이가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많지 않고, 사업 대상자와 사업 수혜자 개념이 혼란스럽다고 한다.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업무담당자는 기관담당자와 컨설턴트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교육에 참여하면서 지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는 기관담당자가 각 업무담당자로부터 분석평가서 초안을 취합하여 지정 컨설턴트에게 보내고, 서면 또는 대면 컨설팅을 일괄적으로 요청한다. 컨설턴트는 분석평가서 초안에 대해 지표별로 분석 근거가 충실한지, 분석 오류는 없는지, 특히 정책개선안이 충실하게 제시되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 다음 자문을 한다. 무엇보다 정책개선안이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집중한다. 이에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초안에다가 의견을 작성해서 기관담당자에게 보낸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기관담당자가 업무담당자들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해서 컨설턴트의 의견을 바탕으로 분석평가서 초안에 대한 수정보완 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수정보완 회의에서 기관담당자는 업무담당자들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 좀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좀 더 추가해

5) ‘농기계훈련사업’은 2010년과 2013년, 2015년에 분석평가가 이루어졌으며, 면접 참여자는 2010년과 2013년에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였다.

### Ⅲ. 사례 1: 농촌진흥청(중앙행정기관) ●●● 31

줬으면 좋겠다. 이런 자료를 찾아봐서 추가하고, 정책개선안을 좀 더 명확하게 다듬었으면 좋겠다.’ 등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수정보완 회의에 컨설턴트가 직접 참석하기도 한다. 농촌진흥청 기관담당자인 김 사무관은 컨설턴트가 업무담당자의 분석평가서 작성 과정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중개자 역할을 매우 잘하는 편이었다. 컨설팅은 업무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하기도 하고, 직접 농촌진흥청을 방문해서 기관담당자와 업무담당자가 함께 모여 대면 컨설팅을 하기도 한다. 컨설팅 과정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토론을 하다 보면 분석평가서 내용이 보다 충실해지고, 정책개선안도 더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도출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분석평가서는 분석 근거가 좀 더 충실해지고, 그에 근거해서 정책개선안도 다듬어진다.

연구자가 면접 조사한 ‘농기계훈련사업’ 담당자인 윤 주무관은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정책개선안을 제시할 때, 실현 가능성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나중에 개선 실적을 요구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농기계훈련사업’의 경우, 2010년 당시만 해도 아직 여성농업인들이 농기계훈련에 대해 ‘필요하다, 내가 배워야 한다’라는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기계훈련 과정을 개설하겠다고 쓰기가 부담스러웠다고 한다. 실제로 여성에게 필요한 개선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업무담당자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희망사항을 포함하기도 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겠다’, ‘리플릿을 제작해서 홍보하겠다’ 등의 개선안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은 도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담당자가 정책개선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표 Ⅲ-3〉 농기계훈련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예시(2010년)

개선안	세부내용
지침 개선	- 2010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 교육 대상에 여성농업인(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여성)을 추가하여 반영
성인지예산 편성	- 2011년도 예산 편성에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많이 활용하는 농기계를 우선 도입하도록 추가
여성대표성	- 농기계훈련용 장비 구입시 여성농업인 및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
사업홍보 개선	- 2011년도부터 교육수료자 대상 설문조사 내용에 사업 수행 인지도 향상 및 이해, 경로 등 문항 추가하여 홍보수단과 방법을 개선할 계획

출처: 농촌진흥청(2010a). 「농기계훈련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내부자료.

‘농기계훈련사업’의 업무 담당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미흡했다는 점을 발견하고, 향후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농기계훈련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여성농업인의 농기계훈련사업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지침에 반영하겠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그 외 예산 편성과 여성대표성, 홍보 활성화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 업무담당자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분석평가서 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개선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4. [정책개선·모니터링 단계] 책임 있는 기관담당자의 열정이 돋보인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어떤 정책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성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여 성평등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둔다. 농촌진흥청이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제시한 정책개선안을 어떻게 환류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자.

기관담당자는 한 해에 적어도 1회 이상 업무담당자에게 정책개선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점검 계획을 안내한다. 통상적으로 환류 점검 현황을 보고하는 기관별 종합결과보고서를 익년도 2월말에 제출하는 일정을 고려하여,

### Ⅲ. 사례 1: 농촌진흥청(중앙행정기관) ●●● 33

사전에 관련 업무담당자를 모아서 향후 정책개선 환류 점검 계획을 알리고, 미리미리 정책개선 환류 노력을 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이후 업무담당자가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에 배치될 수도 있고, 다른 업무에 바빠서 환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관담당자인 김 사무관에 따르면, 올해는 연간 중간에 업무담당자들을 한번 모아서 개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개선이 안 되었다면 왜 그런지를 토론하고 환류 점검 계획을 예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종합결과보고서에 환류 점검 내용의 작성 방향도 미리 알려주고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개선이 안 된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서로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지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업무담당자의 정책개선 환류 과정을 살펴보자. 면접 조사를 한 ‘농기계훈련사업’ 업무 담당자는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말한다. 윤 주무관은 정책개선안을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제공할 기본 사업지침에 반영하였는데, 이들 기관들이 농기계훈련사업을 추진할 때 교육 대상에 여성농업인을 추가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연초에 이들 기관 관계자들과 연찬회를 갖고, 지침 반영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를 가졌다고 한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위해 여성이 훈련받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우선 구입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그리고 농기계 구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교육용 농기계 선정 심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여기에 여성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참여시키기도 했다. 2015년 현재 위원장을 포함한 총 10명 중에서 여성위원은 위촉직 민간위원으로서, 여성농업인단체 관계자 1인과 당연직 공무원 1인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농촌진흥청, 2015a). 연구자가 여성농업인단체 여성위원을 면접 조사한 결과, 여성농업인이 희망하는 농기계교육훈련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한다고 하였다.<sup>6)</sup>

업무담당자 윤 주무관은 ‘농기계훈련사업’ 정책개선안을 환류시키는 과정

6) 이 심의회는 지방 단위 농기계훈련사업에 사용될 교육용 기종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 수요가 높은 기종이 우선적으로 선정된다고 한다. 그래서 여성친화적인 농기계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성의 교육 수요가 높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여성이 교육에 참여하기까지의 사전 장애요인이 많아서 교육 수요가 그다지 높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고 하였다.

### 34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개선 활성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연구

에서 별다른 갈등이나 어려움은 없었다고 한다. 또한 부서 책임자들도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개선안의 취지에 대한 공감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협조적이었다고 한다. 다만 한 가지 어려웠던 점은, 시·군 센터가 실질적인 개선을 환류해야 하는데 센터 관계자들은 여성의 농기계훈련 참여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교육인원을 충족할 만큼 수요가 적을 때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농기계훈련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이후에도 수행되었고 정책개선의 현장을 사진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농기계 작동원리 이해과정〉



〈취급조작 실습교육〉

출처: 농촌진흥청(2015b).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 내부자료.

## 전국매일

2014년 08월 04일 월요일 007면 종합

### “여성농업인이 편하게” 밭작물 기계화 농기계 활용교육

#### 경북도농업기술원, 실습위주 진행

경북도농업기술원은 최근 농업기술원 농업교육관에서 여성농업인 26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대상 밭작물 기계화 농기계 활용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경북의 밭 면적은 14만 2000ha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밭농사의

기계화율은 56% 정도로 낮아 여성농업인들의 노동부하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이번 교육은 농용트랙터(땅갈기고르기), 관리기(두둑만들기와 비닐썩우기), 이식기(모종 옮겨심기), 농약방제기, 예취기(풀베기) 등 작업순서에 따른 기종별 농기계의 운전·작업요령과 안전사용, 간단한 점검·정비

기술 등을 2~3개조로 편성해 실습위주로 진행됐다.

곽영호 경북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은 “이번교육으로 여성농업인들의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고 더 편하고 건강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 신미정기자  
<shinmj@jeonmae.co.kr>

〈언론보도〉

출처: 농촌진흥청(2015b).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 내부자료.

‘농기계훈련사업’ 정책개선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진흥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환류 과정은 이해관계자들 간에 큰 갈등 없이 농촌진흥청의 기관담당자와 업무담당자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고 이것이 가능한 요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분석평가서 작성 과정에서 성 인지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개선안을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기관담당자와 업무담당자, 컨설턴트 모두 정책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따라서 환류 과정에서도 저항이 거의 없었다.

둘째, 농촌진흥청에서는 부서별 성과평가뿐만 아니라 개별 공무원별로도 성과평가를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작성한 업무담당자는 연말에 정책개선 환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를 제출해야 한다. 이것이 업무담당자나 기관담당자로 하여금 개선안을 살펴보면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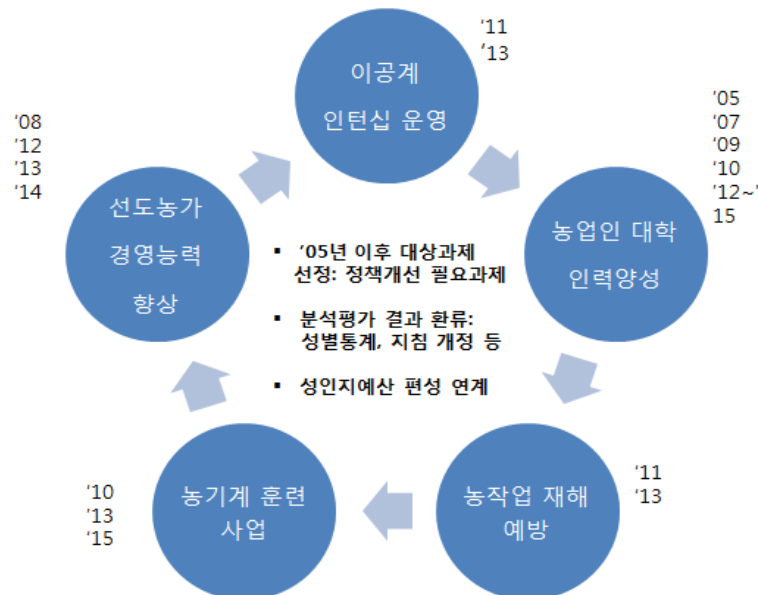
셋째, 농촌진흥청은 중앙부처가 지자체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예산 지원이라는 수단을 활용해서 도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다음으로 농촌진흥청의 정책개선 모니터링 과정을 살펴보자. 농촌진흥청



은 기관담당부서가 중심이 되어 정책개선 이력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정책개선 이력관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었다.

첫째, 대상과제 선정 단계에서, 정책개선이 완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과제로 선정하여 재분석하고 개선을 하도록 한다. ‘농기계훈련사업’이나 ‘농업인대학운영사업’이 몇 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선정되어 분석평가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이러한 정책개선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출처: 여성가족부(2013). ‘농촌진흥청’. 『2013년(2012년 실적) 성별영향분석평가 유공자 포상 및 우수사례 발표회 자료집』. p.36을 참고로 재작성.

[그림 Ⅲ-1] 농촌진흥청 정책개선 이력관리 예시

둘째, 매년 2월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년도에 추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의 정책개선 환류 현황을 점검한다. 농촌진흥청이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

### Ⅲ. 사례 1: 농촌진흥청(중앙행정기관) ●●● 37

서나 정책개선 실적보고서를 보면<sup>7)</sup>, 이러한 환류 점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한 성별통계 생산·활용, 관련 지침 개선 현황을 관리하였다.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한 사업은 정책개선을 위해 예산 편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경우 성인지예산을 편성하였다. 예를 들어 농기계훈련 사업의 경우, 여성을 위한 농기계훈련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농기계 구입 비용을 편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청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추진 사례를 살펴보았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대상과제 선정 단계에서부터 정책개선·모니터링 단계에 이르기까지, 기관담당부서의 책임성과 추진력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업무담당자의 협조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기관담당부서인 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이 농촌진흥청 내에서 조직관리와 성과관리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권한이 높은 부서라는 점이 정책개선을 활성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관담당자가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를 적극 활용하였다는 점도 이 사례에서 부각시킬 만한 특징이다.

7) 예) 농촌진흥청(2010b). 「2010년 농촌진흥청 성별영향평가 최종결과 보고서」.  
내부자료.



## IV

### 사례 2: 경기도(광역자치단체)

1. 선도적인 광역자치단체 41
2. [과제선정 단계] 경기도의 주요 사업에  
성평등을 허하라! 31개 시·군의 공통과제  
툏아보기 43
3. [분석평가 단계] 교육의 효과가 빛난다 47
4. [정책개선·모니터링 단계] 젠더 전문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힘 51



## 1. 선도적인 광역자치단체

경기도는 우리나라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한 첫해인 2005년에 경기도는 기관담당부서에 ‘젠더 전문가’를 배치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으며, 이것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제도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제도적인 인프라도 앞장서서 마련하였다.

예를 들면, 도(道)의 정책이 전반적으로 양성평등 관점에서 수립·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성평등정책책임관 제도’를 2006년에 도입하였다(정형욱 외, 2010: 15-16; 안선덕, 2014). 성평등정책책임관은 행정(1)부지사이며, 실무책임관은 실·과장으로 도지사가 지정한다. 성평등정책책임관은 성평등 정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어서 ‘경기도성평등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해 성평등 정책에 관해 여러 부서 간 심의·조정이 필요할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회의는 연간 2회 개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sup>8)</sup>, 2012년에는 「경기도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를 제정하여<sup>9)</sup> 시행하고 있다(안선덕, 2014). 또한 공무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을 지원할 젠더 전문가 집단으로서 ‘경기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2008년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안에 설치하였다.

이러한 행정 환경과 인적자원을 가진 경기도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왔다. 그동안 추진 과제 수를 보면 2011년 82개, 2012년 181개, 2013년 194개, 2014년 208개로, 대상과제 수가 양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여성가족부, 2012b: 21; 2013b: 59; 2014b: 82; 2015b: 103).

경기도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하면서 나타낸 또 하나의 선도적인 특징은 도가 출연한 공공기관 사업으로까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8)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검색일 2015.8.20.

9)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검색일 2015.8.20.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기관은 ‘2009년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경기도 직속 기관·사업소 및 공공기관까지 실시할 것을 결정하고(안선덕, 2014), 경기도가 우선 시범실시를 하였다. 경기도 출연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근거는 「경기도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에 있다. 경기도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안선덕, 2014; 경기도, 2015).<sup>10)</sup> 경기도는 이러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서 2013년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도의 기관담당자인 안 주무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과 센터 연구원, 도 출연기관 업무담당자 1인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제도 운영의 기본 절차라고 할 수 있는 대상과제 선정, 분석평가서 작성, 정책개선·모니터링 단계에서 각각 누가 어떤 역할로 참여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제도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행위자들의 역할과 그 결과에서 나타난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고자 한다.

경기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추진과정의 특징 및 정책개선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는 경기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기관담당공무원, 업무담당공무원, 경기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연구원 2인, 경기도 출연기관 업무담당자 1인을 심층 면접하였다. 면접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경기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은 다음과 같다.

10) 경기도 출연 공공기관은 23개이며, 각 기관별로 매년 1개 사업과제를 선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해왔다. 2014년에는 23개 기관이 공통으로 기관 자체의 인사제도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다(안선덕, 2014).

〈표 Ⅳ-1〉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단계 (과정)	행위자(actors)		행위결과
	주체자	조력자	절차적 개선
대상과제 선정	- 기관담당 공무원	- 업무담당 공무원 - GIA센터원 - 컨설턴트	1차 : 기관담당자-과제선정 목록(안) 작성 2차 : 기관담당자-GIA센터 및 컨설턴트 협의 3차 : 기관담당자-사업담당부서 최종확정
분석평가서 작성	- 업무담당 공무원	- GIA센터원 - 컨설턴트	1차 : 업무담당자 소규모 집합교육 및 대면 컨설팅 실시, 분석평가서 초안 작성 2차 : 과제별 대면/서면 컨설팅 제공
정책개선·모니터링	- 기관담당 공무원	- 업무담당 공무원 /공공기관 사업담당자 - 컨설턴트	1차 : 기관담당자가 환류점검 계획 예고(연초) 사업 과제별 정책개선안 정리해서 업무담당자에게 제공 2차 : 기관담당자가 환류점검 계획 2차 예고 3차 : 환류 결과 서면보고 받음(연말)

## 2. [과제선정 단계] 경기도의 주요 사업에 성평등을 허하라! 31개 시·군의 공통과제 훑아보기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의 선정 단계는 제도 추진 절차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그리고 공무원이 가장 어려워하는 업무이기도 하다(김둘순 외, 2013; 최유진 외, 2014). 하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정책개선 환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상과제의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정형옥 외, 2010: 55).

경기도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성가족부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나는 공무원이 담당 업무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자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다른 시·도와 달리 경기도는 2015년에 대상과제를 선정하면서 도 및 시·군이 공통의 사업을 선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공통과제 선정을 위한 기준은 일반적인 과제 선정 기준과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공무원이 직접 실시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의 선정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차적으로 기관담당자가 경기도의 세입세출서를 활용하여 대상과제 후보 목록(안)을 선정한다. 기관담당자가 후보를 선정하는 기준은 여성가족부가 당해 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서 제시하는 선정 기준을 준용하되, 경기도만의 특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활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15년에는 동일한 사업이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2년 동안 분석평가가 이루어진 사업은 제외하고 새로운 사업으로만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경기도의 제도 추진 기본 방향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적어도 한 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해서 성평등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기관담당자인 안 주무관과의 면담 내용에 따르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4년간 담당하다 보니 세입세출서만 봐도 선정 기준 또는 제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이 보인다고 한다. 물론 이는 안 안 주무관이 젠더 전문가이면서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관담당자는 대상과제 선정 목록(안)을 만든다.

둘째, 기관담당자는 1차 대상과제 선정 목록(안)을 가지고 경기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연구자와 함께 대상과제 선정 회의를 한다. 이때 센터 연구원뿐 아니라 외부 컨설턴트도 1~2명 참여한다. 대상과제의 목록(안)을 보면서 대상과제로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 선정되지는 않았는지, 또는 선정 근거가 애매한 과제가 없는지 등을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검토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상과제 선정 이유나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고, 대상과제 선정 목록(안)은 분석평가를 수행하기에 보다 적합한 방향으로 다듬어지게 된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연구원과 컨설턴트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검토회의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는 당사자는 센터의 전문가와 컨설턴트이기 때문이다.

셋째, 기관담당자는 두 차례에 걸쳐 수정보완된 대상과제 목록(안)을 확정과제로 통보하기에 앞서 각 사업 담당 부서에 통보한다. 대상과제 확정해당 부서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부서에서는 기관담당자가 제공한 목록(안)에 대해 큰 이견이 없으면 확정 목록으로 결정해서 담당부서

에 제출한다. 하지만 어떤 부서에서는 “이 사업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업무담당자로부터 기관 담당자인 안 주무관에게 문의가 들어오기도 한다. 일부 부서에서는 기관담당자에게 대상과제를 목록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기관담당자의 설명에 설득이 되어 수용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하지만 기관담당자가 업무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목록(안)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그 사업이 다음 연도에 일몰사업 이거나<sup>11)</sup> 아니면 국비만 전액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가 그렇다. 이런 경우는 다시 협의하여 조정을 해주기도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절차가 경기도가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2015년 처음으로 도 및 31개 시·군 공무원이 공통으로 분석평가할 대상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소개해본다. 먼저 기관담당자인 안 주무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도 및 시·군 공통과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센터도 이에 동의하여 참여하기 시작했다. 2015년 공통과제 선정 기준은 지역 성평등 지표와 지역 현안 이슈, 지역주민에 파급 효과가 큰 사업, 예산 규모가 큰 사업, 성 인지적인 관련 선행연구가 있는 사업 등으로 하였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안 주무관과 센터는 크게 4개 분야를 공통과제 선정 분야로 결정했다. 지역 성평등 지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성평등지수 중 ‘건강 분야’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에 착안하여 ‘건강검진사업 또는 암검진사업’을 선정했고, 지역 현안 이슈로는 세월호 사고 피해 지역이 도내에 있는 것을 고려하여 ‘재난안전대책 관련사업’을, 또 지역주민의 생활에 밀접하고 파급력이 큰 시설 설치 분야로는 ‘문화센터 설립 및 공원 등 대규모 시설 개선 및 조성사업’을 선정했다. 이 외에도 예산 규모가 매우 크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둘레길, 옛길, 문화 숲길 탐방 걷는 길 조성 사업’이 공통과제 분야에 포함되었다. 도 및 시·군은 이 4개 분야 중에서 5개 사업 이상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2015년 초에 31개 시·군의 기관담당자를 모아서 공무원 교육을 실시

11) 일몰사업은 정부의 사업 또는 조직이 미리 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사업을 말한다(행정학 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7406&cid=42155&categoryId=42155>(검색일자 2015. 9. 10.)).

하고, 이 자리에서 도 및 시·군 공통과제 선정 추진에 관해 의견을 수렴했다. 각 시·군 기관담당자들에게 4개 분야 중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5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선정하도록 제안하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는데, 각 기관담당자들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군 기관담당자 입장에서는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업무가 어렵다고 느끼는데, 상급기관인 도청이 과제선정 분야를 지정해 제공해주면 시·군의 사업담당부서 공무원을 설득하기가 매우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기도가 도 및 시·군 공통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려는 목적은 두 가지이다. 각 시·군 기관담당자의 대상과제 선정을 지원하여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것과, 향후 정책개선 환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경기도 기관담당자인 안 주무관은 정책개선 환류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 및 31개 시·군이 추진하는 분석평가 과제가 많아서 모든 과제에 대해 환류 점검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향후 환류 점검을 할 대상으로 미리 공통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전문가가 수행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를 1개 선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경기도가 출연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수행한다. 경기도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이나 절차는 여성가족부의 분석평가와 유사하다. 분석평가 결과 정책개선안이 도출되면 기관담당자는 개선안을 해당 사업부서나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개선 권고를 하고, 반영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과제선정 방식은 그해에 지역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현안 중에서 젠더 이슈가 내재되어 있는 주제를 대상과제로 선정한다. 그리고 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 동의를 구한다. 그리고 도 기관담당자와 센터 소속의 전문 연구자가 함께 대상 부서를 방문하여, 해당 사업을 어떤 이유에서 분석평가하려고 하는지, 경기도 지역 상황에서 이러한 젠더 이슈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평가를 하면 어떤 도움을 해당 부서에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설명한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해당 부서와 협의하고 대상과제

를 선정하는데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 가지 자료나 조사 협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안을 실제로 환류하기 위해서도 과제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2014년에는 재난 안전 이슈가 크게 부각된 점을 고려해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안태운, 2014)를 실시하였고, 2015년에는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는 이러한 대상과제 선정이나 추진 계획을 실·국장으로 구성된 성평등조정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각 부서의 실·국장으로 하여금 젠더 이슈에 관심을 가지도록 환기시키고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여, 향후 어떤 실·국에서든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다.

이와 같이 경기도는 기관담당자와 센터 연구원, 컨설턴트 간의 협력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가 선정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 3. [분석평가 단계] 교육의 효과가 빛난다

경기도는 공무원들의 분석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주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첫째, 경기도 기관담당자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과제 담당 공무원을 교육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분석평가를 위한 공무원 교육은 도 및 시·군 공무원 합동으로 진행되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주관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이 교육의 일차적 목표는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이 분석평가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분석평가 단계에서 이 교육 과정을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1차, 2차, 3차로 각각 나눠서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설한다. 경기도는 지역이 넓어서 수원에 소재한 연구원까지 공무원들이 방문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원거리의 경우 방문 교육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이해와 사례 분석, 분석평가서 작성 실습을 위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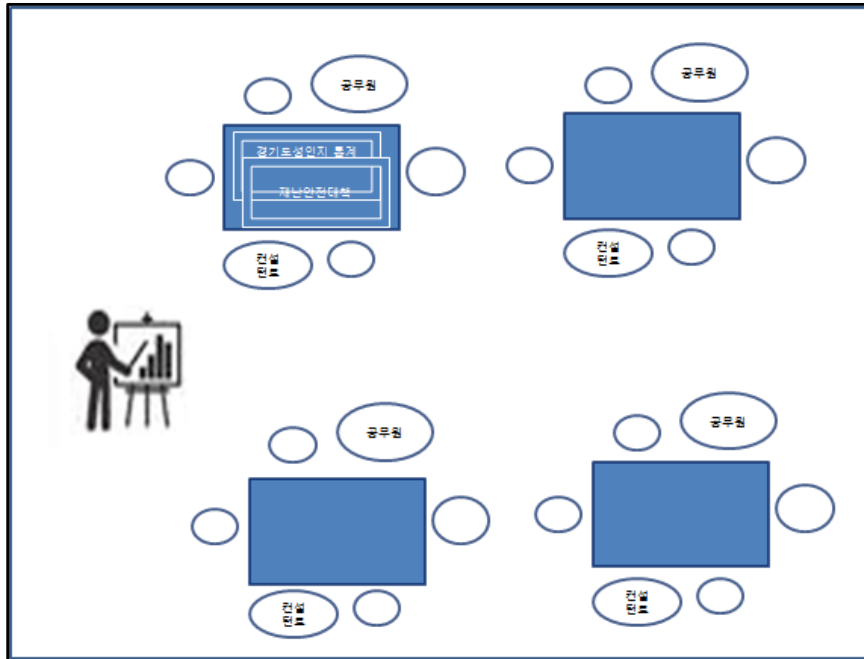
〈표 IV-2〉 경기도 업무담당공무원 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목적	교육내용
업무담당자과정 (4시간/7시간)	과제(사업/법령/ 계획)담당자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 작성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체계</li> <li>•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와 사례 분석</li> <li>•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 작성 실습</li> </ul>

출처: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http://www.gfwri.kr/, 검색일 2015.9.2.).

교육은 1회에 약 30여 명 내외의 소규모로 구성·운영한다. 조별로 5~6명씩 구성하고, 각 조에는 전문 컨설턴트를 1명씩 배치하여 공무원의 분석평가서 작성을 현장에서 바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각 조별로 경기도 및 시·군 성인지통계집과 분석 대상 사업계획서,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 그 외 경기도가 추진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 등을 준비하여 제공한다.

분석평가서 작성 실습은 약 4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무원은 직접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면서 답변을 들을 수 있고, 분석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지원받거나 자료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업무담당자는 본인의 과제에서 ‘사업 대상자’와 ‘사업 수혜자’를 누구로 설정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각 조에 배치된 컨설턴트나 동료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조별 토론을 통해 지표를 보다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개선안을 무엇으로 제시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토론하고 컨설팅을 받는다.



[그림 Ⅳ-1]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담당자 대상 교육 및 컨설팅 현장 추상도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업무담당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를 보다 더 이해하게 되고 본인이 작성해야 할 분석평가서 전체를 완성하게 된다. 그 다음, 교육을 주관하는 센터에서는 업무담당자가 해야 할 마지막 미션으로써, 참석 공무원들에게 ‘사무실로 돌아가서 곧바로 성별영향분석평가(GIA)시스템에 분석평가서를 입력하고 컨설팅 메뉴 단추를 누르시오’라고 요청한다. 그러면 분석평가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별 컨설팅이 이루어지게 된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튜터링 방식의 업무담당자 교육을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분석평가서 작성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이러한 교육은 매우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을 주관하는 센터는 교육해야 할 내용의 양이 늘어나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서 힘이 많이 든다고 한다. 하지만 도 및 시·군의 기관담당자를 비롯해 업무담당자들은 크게 만족해하는 편이다. 특히 시·군 기관담당자는 분석평가서를 취합해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

는 입장에서 분석평가서의 작성과 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환영한다고 한다. 업무담당자가 교육을 받으면서 직접 분석평가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기관담당자가 일일이 지원하지 않아도 되고, 시스템 입력도 업무담당자가 직접 하도록 하고 있어서 기관담당자의 업무 부담도 덜게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분석평가서를 작성해야 할 당사자인 업무담당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게 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교육 효과가 각 시·군에 알려지면서 2015년에는 2개 시·군을 제외하고 모두 분석평가서 작성을 위한 실습 중심의 교육을 받고자 신청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난해에 비해 교육을 신청한 시·군이 많이 늘어난 것이다.

교육의 또 다른 효과는, 대상사업 선정에 불만이 많았던 공무원들이 교육과 컨설팅을 받고 동료 공무원과 토론을 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는 것이다. 경기도 기관담당자인 안 주무관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질문이나 반발감이 상당히 줄어드는 경향이 보인다고 하였다. 이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대상 교육을 어떻게 수행해야 효과가 있는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공무원들의 분석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업무담당자 교육 후에는 과제별 분석평가서 작성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경기도는 도 및 시·군별로 전문 컨설턴트를 지정 배치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법령 및 중장기 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컨설팅은 센터 내 연구원이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컨설팅은 별도의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지원한다. 센터는 컨설턴트들이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역량강화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때 센터가 강조하는 점은 공무원이 실현 가능한 정책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라는 것이다. 아울러 컨설턴트들은 공무원이 다음해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개선안을 제시해주도록 요구받는다. 기관담당자인 안 주무관에 따르면, 컨설팅을 받지 않은 과제는 대부분 정책개선안을 거의 제시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정책개선안을 도출하려면 컨설팅을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

이 여기서도 드러난다.

셋째, 분석평가서의 작성 방향은 실현 가능한 정책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공무원 교육과 컨설팅 과정 전반에 걸쳐 정책개선안 도출이 거듭 강조되는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인 정책개선안을 요하는 것 보다는 다음해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기관담당자인 안 주무관은 교육과 컨설팅 지원 외에도 정책개선안 우수 사례 자료들을 법령·계획·사업에 관해서 수집하여 제공해주기도 한다. 법령 분석평가 정책개선안의 경우는 지표가 단순한 만큼 개선안도 간단하게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지표별로 우수 사례를 제공해준다고 한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업무담당자는 도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준 덕분에 2014년 공공기관 인사행정에 대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고 정책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이 분석평가서에서는 주요 정책개선안으로 ‘육아휴직 복귀자의 연차휴가 제도 개선’, ‘여성 대상 교육훈련비 별도 책정’, ‘여성 재직자 학위과정 참여 여건 마련 및 참여 권장’, ‘여성 역량강화교육 참여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경기과학기술진흥원, 2015). 업무담당자인 정 주무관과의 면접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개선안이 최근의 양성평등을 향한 시대적 변화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정책 환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제시했다고 한다.

#### 4. [정책개선·모니터링 단계] 젠더 전문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힘

경기도는 2011년 이후 잠시 중단하였던 정책개선·모니터링을 올해 새롭게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기관담당자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민관 협력의 젠더 거버넌스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는 것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2016년에는 본격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기도 기관담당자 안 주무관은 연초에 업무담당자에게 환류 점검 계획



을 예고하였고, 중간에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한다. 연초에 예고할 때 정책개선안을 사업과제별로 정리해서 업무담당자에게 보냈고, 연말에 여성가족부에 보고할 목적으로 정책 환류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는 것을 미리 알렸다.

환류 점검 방법은 서면보고 방식으로 간단하게 한다. 연초에는 도의 기관 담당자가 사업과제별로 엑셀파일에 정리해서 통보한 개선안에 대한 진행 상황, 개선 완료 여부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안 주무관은 환류 현황을 점검하는 방식이 업무담당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업무담당 공무원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분석평가서를 작성하고 교육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정책개선안을 환류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수고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갖는다. 그들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정책 환류에 관한 증빙 자료까지 모두 요구할 경우 그에 따른 업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책 환류에 대한 이행 점검이 기관담당자로서 상당한 부담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면접한 공공기관 인사제도 운영 업무담당자와의 면접 내용에 의하면, 정책개선안을 모두 환류하였다고 한다. 예를 들면 소속 기관의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였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규정 및 규칙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육아휴직 대체인력 및 여성 리더십 교육 예산을 2015년 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경기과학기술진흥원, 2015). 다행스럽게도 정책 개선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별다른 이해갈등이나 어려움은 없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이미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개선안을 업무담당자가 제시하였고, 이 개선안들은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이슈라는 데 기관 내부 직원들의 공감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기도는 2016년에 반드시 환류 점검을 위한 민관협력 모니터링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환류 점검을 통해 우수한 개선 사례를 발굴하여

#### IV. 사례 2: 경기도(광역자치단체) ●●● 53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기관에 널리 홍보하고 공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우수개선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우수 사례발표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또한 정책개선 사례에 관한 글을 신문 등에 게재하거나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경기도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상과제 선정 단계부터 정책개선·모니터링 단계에 이르기까지, 기관담당부서인 여성정책부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력이 돋보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요인은 기관담당자로 젠더 전문가를 채용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업무 전반을 전담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기관담당자와 경기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턴트가 상호 신뢰 속에서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고 그 개선안을 활성화시키는 주요 요인이었다고 판단된다.



# V

## 사례 3: 대전광역시(광역자치단체)

1. '공무원-컨설턴트-시민'의 풀뿌리 젠더 거버넌스를 위하여 57
2. [과제선정 단계] 자체적인 체크리스트 개발과 공동과제 선정 60
3. [분석평가 단계] '법령'이나 '계획'이나 '사업'이나, 맞춤형으로 평가한다 67
4. [정책개선·모니터링 단계] 시민참여에서 평생교육까지, 성평등 감수성을 레벨업하다 73



## 1. ‘공무원-컨설턴트-시민’의 풀뿌리 젠더 거버넌스를 위하여

대전광역시는 우리나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처음 추진되기 시작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해 제도 활성화에 동참하고 있다. 2005년 대전광역시가 처음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한 과제는 대전광역시 본청의 4개 사업이었으며, 대전시 기초자치단체는 2006년부터 분석평가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횟수가 늘고 점차 제도가 확산됨에 따라 2014년에는 대전광역시 본청과 대전광역시의 5개 자치구에서 실시한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수는 모두 948개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큰 폭의 참여 확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V-1〉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수의 변화(2005-2014)

(단위: 개)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광역 (대전광역시 본청)	4	9	9	16	19	12	14	155	184	242
기초 (5개 자치구)	-	5	15	50	122	89	85	385	636	706
전체	4	14	24	66	141	101	99	540	820	948

자료: 여성가족부(2006). 「200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_\_\_\_\_(2007a). 「2006년도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여성부(2008a). 「2007년도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  
 \_\_\_\_\_(2009a). 「200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2010a). 「2009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_\_\_\_\_(2011a). 「201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_\_\_\_\_(2012a).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특히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제정해서(2011.9.15.), 해당 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12년(2012.3.16.)에는 기존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실적의 5배 이상의 과제수 증가를 보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법 제정 이전과 이후의 참여 현황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평가법 제정 이후 성별영향분석평가 참여 과제의 상당한 증가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에 대전광역시만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 그러나 다른 시·도와 제도 참여 과제의 증가 정도를 비교해본다면, 대전광역시 본청의 경우 전국 광역단위 기관 중 4번째로 참여 과제가 많으며 기초단위 또한 기관 평균 141개 과제를 실시하여 전국 평균 과제수 92개와 비교해 전국 평균 참여수치를 웃도는 제도 추진 현황을 보이고 있다.

대전광역시에서 이와 같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참여 과제가 상당 수준 증가하게 된 배경 및 요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대전광역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담당공무원 및 광역시 내 5개 기초자치구 기관담당공무원, 성인지예산 담당공무원, 그리고 행정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상호 긴밀하고 원활한 협조 하에 효율적인 제도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이 2012년부터 각 행정기관의 제도추진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를 두고 있고 이 센터와 대전광역시 기관담당자의 적극적인 행정 실행역량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양자 간의 장점이 결합되어 대전시는 대전만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대상과제를 선정하면서도 각 분석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 업무담당 공무원이 좀 더 책임성 있게 분석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만들게 되었다. 또한 센터가 만들어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의 평가서 작성에 대한 컨설팅을 시작한 지 4년차에 이르기까지 센터와 컨설턴트들은 분석평가 대상과제들이 성평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해왔다. 그 결과 센터 및 컨설턴트 등 젠더 전문가들은 점차 공무원의 신뢰를 얻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각 분석평가 담당공무원의 분석평가서 작성의 질을 높이는 데 컨설턴트들이 기여하고 있다.

둘째, 공무원과 젠더 전문가뿐 아니라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대전광역시의 성 주류화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도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는 시의원이 지속적으로 대전의 성 주류화 정책 추진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관련 답변을 요구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행정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제도 참여에 힘쓰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의 여성정책연구기관인 대전발전연구원 내 대전여성이

## V. 사례 3: 대전광역시(광역자치단체) ●●● 59

죽정책센터<sup>12)</sup>는 2012년부터 성 주류화의 확산을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 추진 과정을 점검하는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운영하여 매년 정책 환류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분야 사업담당 공무원들과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정책환류를 독려하는 장을 마련해두고 있다.

이에 본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 관련한 사례분석에서는 위와 같은 대전광역시의 제도추진 특성을 바탕으로 대상과제 선정단계, 분석평가 단계, 정책개선 및 모니터링 단계의 제도 추진 과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역할 및 이로 인해 각 행위자들의 적극성 및 제도 운영방식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추진과정의 특징 및 정책개선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대전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총괄 담당하였던 기관담당공무원,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대전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연구원 3인, 대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이자 대전 여성정책 시민 모니터링 활동을 하였던 대전여성단체 활동가 1인을 심층 면접하였다. 면접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대전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은 다음과 같다.

12)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2012년 여성가족부로부터 대전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2015년 현재까지 계속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운영하며 대전시 및 기초자치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표 V-2〉 대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

단계 (과정)	행위자(actors)		행위결과
	주체자	조력자	절차적 개선
대상과제 선정	- 기관 담당자	- 업무 담당자, 젠더 전문가	1차 : 기관담당자-업무담당자에게 대상과제 선정 체크리스트 작성 요청 2차 : 기관담당자-컨설턴트 협의 3차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최종확정
분석평가서 작성	- 업무 담당자	- 젠더 전문가	1차 : 업무담당자가 분석평가서 초안 작성 2차 : 컨설턴트가 서면 컨설팅 제공 3차 : 컨설턴트가 대면 컨설팅 제공
정책개선· 모니터링	- 공무원, NGO	- 의원 - 젠더 전문가	1차 : 업무담당자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 개선안 도출, 정책개선 현황 제출 2차 : 평생교육사업, 도시공원사업 등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 결과, 정책개선의 성과 파악 3차 : 기관담당자가 정책개선 실적 취합

## 2. [과제선정 단계] 자체적인 체크리스트 개발과 공통과제 선정

2013년 중반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전광역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담당 역할을 맡았던 백 주무관은 이전에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내의 다른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년 7월, 같은 부서 내 여성정책 업무추진 담당으로 인사이동이 되면서 처음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보통 각 행정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담당을 맡게 되는 공무원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외에 다른 업무들도 맡게 되기 때문에 기관담당 주무관 또한 여러 업무 중 하나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된 시점인 8월말부터 9월은 지자체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였으므로 당장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해서 맨 처음 진행한 업무는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5개 기초자치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일이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의 선정은 기관담당자들에게 어려운 일로 다

V. 사례 3: 대전광역시(광역자치단체) ●●● 61

가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시에서 추진하는 수많은 사업 중 어떤 사업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로 선정해야 할지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담당자들에게는 어떤 이유에서 그 사업이 대상과제로 선정되었는지 사유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백 주무관은 대상과제의 선정 업무를 위해 대전광역시 및 5개 기초자치구의 모든 세부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체크리스트”<sup>13)</sup>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일을 진행했다. 공무원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전 사업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출한 후, 점수가 높은 과제들을 중심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좀 더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점은 위와 같은 대전시의 대상과제 선정 과정이 여타의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대상과제 선정방식과는 매우 다른 방식이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기관담당자가 성별센터의 컨설턴트 등 전문가에게 여러 차례의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 결과에 대한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친 후 그 중 가장 적절한 사업을 기관담당자 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정하여 각 부서에 전달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대전시 또한 백 주무관이 기관 담당업무를 맡기 전인 2012년도까지만 해도 이처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적절한 대상과제를 선정했다. 그러나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도화되어 첫 시행된 2012년 지자체의 상황은 각 사업담당자들의 상당한 저항에 직면해 원활한 제도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거하여 그 이전에 비해 각 부서별로 제출해야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수는 상당수 증가하게 되었지만 각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제도의 취지에 대해 이해하고 동의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자신이 맡은 사업이 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되었는지를

13) 이 체크리스트는 대전 성별센터에서 행정기관의 각 사업 담당공무원들이 자신이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로 적절한지를 체크리스트를 활용, 체크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정량적으로 점수화 하여 적절한 대상과제를 선별해 낼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개발하였다.

## 62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개선 활성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연구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으며, 그로 인한 업무 증가에 대한 불만을 상당히 높은 수위로 제기하는 등의 저항을 표했다. 이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담당자와 기관의 제도 추진을 지원하는 센터는 사업 담당공무원의 동의를 얻어내 원활한 제도추진을 이끌어내는 데 대한 고민이 깊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이런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분석평가 대상과제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보다 세분화한 지표를 마련하여 “대전형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전문가가 추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방안” 연구(주혜진, 2014)에서 제시한 대전형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취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맥락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해당 사업이 “인적자원 대상 사업”, “시설설치 및 개선사업”,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인지를 체크하여 위 세 가지 항목에 해당된다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기에 적절하다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사실상 지자체 운영비와 관련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분석평가 대상으로 고려가 가능하다. 이에 (대전시 본청 2014년 사업 기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상 500여 개의 단위사업과 1,600여 개 세부사업을 모두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들을 모두 사업계획서 등만을 참고하여 분석평가를 통한 사업개선을 추진했을 때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을 만한 적절한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성평등”과 관련하여, 대상과제 선정 시 자문을 제공하는 컨설턴트와 업무 담당 공무원 사이에 합의된 판단 기준이 없어, 실제 분석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여 분석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이 사업을 분석평가해서 성평등한 기대효과를 얻기는 힘들다”는 담당공무원들의 반론에 부딪힌다. 이에 보다 체계적이면서 정책사업담당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과제 선정의 기준과 방법이 요구된다”는 것이 대전형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의 배경이다(주혜진, 2014 : 3~4)<sup>14)</sup>.

# V. 사례 3: 대전광역시(광역자치단체) ●●● 63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개발된 대전형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2013년도에 처음 도입되어 앞서 기술하였던 바와 같이 대전시 본청 및 5개 자치구의 “모든 세부사업 담당공무원”들이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모든 새로운 절차의 도입이 여러 형태의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처럼 당연하게도) ‘대전형 체크리스트’ 도입이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하지는 못했다. 기존의 대상과제 선정과정에서 겪게 되는 갈등을 줄이고자 좀 더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선정기준을 제시한 체크리스트 작성을 근거로 대상과제를 선정하였음에도 도입 당시에는 당장 공무원의 저항이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한다. 또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대상과제 선정 결과를 놓고 보니 실제로 과제가 특정 분야 및 특정 부서에 몰리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2014년과 전년도에 개발한 체크리스트를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체크리스트 개선을 위해 여러 차례의 전문가 조사 및 대전시와 기초자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과의 협의를 거쳐 체크리스트의 지표를 보다 설득력 있는 지표로 개선하는 노력을 시도했다. 그리고 이런 체크리스트에 대한 점검은 2015년 올해 또한 마찬가지로 진행하여, 체크리스트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14) 대전에서 처음 대전형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활용한 것은 2013년이나, 본 분석에서 인용한 체크리스트 개발 취지는 체크리스트 개발 연구자인 주혜진의 2014년 연구로, 인용한 연구보고서의 발간 시기가 체크리스트 최초 개발 시기와 다르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의 필요성 및 취지는 동일한 것으로 보아 해당 보고서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 2015년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안내 : 아래 체크리스트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편성사업 대상과제 선정과정에 반영됩니다.  
과제담당자가 체크하여 제출한 자료는 추가 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2016년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 시험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작성법 : 1. 해당 여부란 ○, ×로 기재.

연번	부서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담당자 이름 (전화 번호)	성명 (인화 번호)	제외 고려의 경우		고려 대상의 경우																
						1. 여성 정책 의 지향 성 이 있는 사업 인가?	2. 여성 정책 의 지향 성 이 있는 사업 인가?	3. 작년 예산 대비 증감 이 있는 사업 인가?	4. 작년 예산 대비 증감 이 있는 사업 인가?	5. 작년 예산 대비 증감 이 있는 사업 인가?	6. 작년 예산 대비 증감 이 있는 사업 인가?	7. 작년 예산 대비 증감 이 있는 사업 인가?	8. 작년 예산 대비 증감 이 있는 사업 인가?	9. 작년 예산 대비 증감 이 있는 사업 인가?	10. 작년 예산 대비 증감 이 있는 사업 인가?	11. 작년 예산 대비 증감 이 있는 사업 인가?	12. 작년 예산 대비 증감 이 있는 사업 인가?							
1	부서명	단위사업명1	세부사업명 1			○	×	×	○	×	×	○	×	×	×	○	×	×	○	×	×	○	×	×
2	부서명	단위사업명1	세부사업명 2																					
3	부서명	단위사업명1	세부사업명 3																					
4	부서명	단위사업명1	세부사업명 4																					
5	부서명	단위사업명2	세부사업명 1																					
6	부서명	단위사업명2	세부사업명 2																					
7	부서명	단위사업명2	세부사업명 3																					
8	부서명	단위사업명2	세부사업명 4																					
9	부서명	단위사업명3	세부사업명 1																					
10	부서명	단위사업명3	세부사업명 2																					
11	부서명	단위사업명3	세부사업명 3																					

\*\* 제외 고려 점검지표항목의 경우 감점 가중치 부여, 고려대상 점검지표항목의 경우 가점 가중치 부여

자료: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2015).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의 과정.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내부자료.

#### [그림 V-1]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또한 대상과제 선정 시 특정 분야 및 부서에 과제가 몰리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2014년에는 각 부서별 2건, 사업소의 경우 1건 이상의 과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대상과제 참여 수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내었다. 더불어 체크리스트를 통해 1차로 대상과제를 선정한 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부서 협의 등을 거쳐 다시 한 번 대상과제를 걸러내고, 이를 다시 성별센터의 전문가들의 정성평가를 통해 적절성 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여러 단계의 점검 절차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최종 선정된 당해연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는 모두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대전시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과의 연계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틀을 확고히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과정을 거쳐 대전광역시에서 대전형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보완을 거듭하여 3년째 활용하면서 얻게 된 여러 장점이 있다.

## V. 사례 3: 대전광역시(광역자치단체) ●●● 65

첫째, 대상과제 선정 과정이 간소화되었다는 점이다. 단위사업만을 기준으로 해도 대전시 및 기초자치구에서 대상사업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업 수는 500여 개를 넘게 되고,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그 수는 기하급수로 증가해 수천 개의 과제에 달하게 된다. 하지만 설득력 있는 지표를 구성, 이를 최종적으로 점수화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기 때문에 대상과제의 범위를 좁히는 과정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어 이를 담당하는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업무효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두 번째 장점은 모든 세부사업 담당공무원들이 체크리스트를 직접 작성 제출하도록 하는 과정 자체가 사업 담당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관심, 이해를 환기하고 일정 정도 책임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임연구원의 설명이다. 즉 자신이 담당한 사업이 분석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에 불만을 표시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 때 사업담당자 스스로가 작성한 체크리스트 내용에 근거하여 정량적인 지표를 점수화한 결과라는 설명을 하게 되면 사업담당자 또한 이를 쉽게 납득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여타의 행정기관들에서 분석평가서 작성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여전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부서의 가장 낮은 직급 공무원에게 담당사업 관련 분석평가서를 쓰게 하는 경향이 많지만, 전 사업을 대상으로 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이를 정량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대상사업을 선정할 경우 명확하게 분석평가 대상 세부사업과 그 담당자가 드러나기 때문에 더 이상 분석평가서 작성업무를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같은 대전형 체크리스트 개발 및 활용, 그리고 이로 인한 성과를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제도추진과 관련한 문제가 드러났을 때 바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는 행정주체와 전문가 집단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이다. 행정기관 내 일선 공무원의 저항감을 줄이고 적극적인 제도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으로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젠더전문가 집단이 여러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을 수립하면서 대전형 체크리스트를 개발해낸 과정과 이러한 성별센터의 노고를 살려 전 사업담당자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행정적인 실행력을 발휘한 것은 대전광역시의 기관담당자 및 소관부서의 의지와 추진력이 돋보이는 점이다.

대전광역시의 대상과제 선정과정의 또 다른 특징은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과제선정과정 외에 한 단계를 더 거쳐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공통과제”를 추가 선정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공통과제라는 것은 여러 부서가 시행하는 사업 중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또한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대전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공통과제”로 선정하여, 분석평가를 통해 제시된 사업개선안을 전 부서가 수용하여 사업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갖는다.

백 주무관은 2013년에서 2014년 기관담당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공통과제를 선정하여 각 부서에서 이를 수용,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한다. 그리고 공통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타 부서의 동의 및 협조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와 같이 타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건복지여성국의 국장의 역할도 주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전에 여성가족청소년과 과장을 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백 주무관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면서 파트너 십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국장 스스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서의 경험을 갖고 있었기에 해당 업무 추진의 필요성 및 부서 간 긴밀한 협조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으로서의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으로 백 주무관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을 대전시 성과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앞서 기술한 “‘1부서 2과제, 1사업소 1과제의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성과평가 시 감점”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참여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공무원들의 저항 및 갈등 상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평가 지표 개선을 위해 기관담당자인 백 주무관이 대전시 기획관리실에 지속

적으로 개선 요청을 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한 것 외에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부서장 차원에서 계속된 협조 요청 등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또한 대전시 내에서 성 주류화 추진을 독려하는 데 대전시 시의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큰 기여를 하였다. 해당 시의원이 명시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공통과제 선정’ 또는 ‘성과평가 시 성 주류화 정책 추진 실적 반영’ 등을 주장한 것은 아닐지라도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 심의 등 공식적인 장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담당부서인 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외에 타부서(특히 간부급 공무원) 또한 성 주류화의 핵심도구인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만드는 데 측면 지원자로서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 면접에 참여한 (전)기관담당 공무원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공통적인 평가였다.

### 3. [분석평가 단계] ‘법령’이나 ‘계획’이나 ‘사업’이나, 맞춤형으로 평가한다

대전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제 수행하는 단계는 해당 과제가 법령인지, 계획인지, 사업인지에 따라 컨설팅 과정 및 컨설팅 의견을 수용한 결과가 어떻게 반영하게 되는지 그 과정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제·개정 조례(안)를 제출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제출해야만 하는 틀을 갖추고 있기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며, 젠더 전문가의 컨설팅 의견을 수용하였는지 여부 또한 법령 공포 전에 확인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계획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특정 분야와 관련하여 장기적인 도달목표 및 추진계획을 다루고 있어 정책범위가 광범위하고 다년간의 시간에 걸쳐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에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경우, 방대하고 매우 전문적인 분야



를 다루는 계획에 대한 컨설팅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무엇보다 제도운영 취지를 고려한다면, 원칙적으로 계획 담당자는 수립하게 되는 계획과 관련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도출된 정책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계획이 시행되기 이전에 컨설팅을 받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새로이 수립되는 계획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해당계획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계획수립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분석평가서를 제출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이 제시한 검토의견통보서의 정책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도 적은 편이다.

하지만 대전의 경우 새로 수립된 계획과 관련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의 의견이 거의 100% 가까이 반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성별센터 전임연구원과의 면접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대전시에서 이처럼 계획에 대한 성평등을 고려한 정책개선 의견이 거의 대부분 수립되어 계획에 반영되고 공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요하게 기여한 것은 컨설팅 내용의 전문성과 효과적인 컨설팅 시기 및 방법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면접조사 결과 대전 성별센터는 2012년 처음 행정기관의 제도운영을 지원하기 시작한 이래, 해를 거듭할수록 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구축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이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과정이다.

대전 성별센터는 당해연도에 수립 예정인 계획이 있을 경우 이를 미리 파악하여 해당 계획 수립 담당공무원에게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임을 안내한다. 그리고 계획 수립과정에서 반드시 젠더 전문가, 즉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계획이 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받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관련 부분을 개선하여 계획수립 과정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모든 계획수립이 완료된 이후에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정책개선안이 도출된다 해도 이미 완성단계에 들어선 계획을 수정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담당자가 많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

### V. 사례 3: 대전광역시(광역자치단체) ●●● 69

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대전시의 경우에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젠더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계획 수립 과정에서 자문이라는 형태를 통해 의견 수립 과정을 거치게 될 경우 해당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 숙고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계획의 성평등한 방향을 점검한다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계획 수립 초기부터 담당공무원에게 젠더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제안하고 해당 부서에서 이를 수용하는 쌍방향 협의의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그 결과는 계획수립 담당자에게 성평등을 고려한 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성별센터 전임연구원의 설명에 의하면, 해당 부서에서 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 내에 성평등을 고려한 계획 수립 관련 자문비를 책정, 부서 소관 하에 자문의견을 받게 되면서 “자기 부서의 비용을 투자해 자문을 받았으니 당연히 적극적으로 자문 의견을 수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즉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의 방식을 넘어서서 계획 수립 과정의 일환으로 성평등 자문을 포함하는 아주 작은 방식의 변화이지만, 이 변화는 해당 부서의 책임성을 높이게 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의견을 수용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계획 수립 부서에서 성별센터의 제안을 받아들여 성평등을 고려한 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과정 및 자문 결과를 적극적으로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데에는 성별센터의 체계적인 지원 및 컨설턴트의 전문성 있는 컨설팅 의견 제시를 통한 신뢰감 형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개의 계획과 관련하여 1명의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긴 시간 해당 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고 해당 분야의 성평등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제시한 상태에서 정책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계획 수립 담당부서에서도 컨설팅 의견의 타당성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그 결과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및 자문 과정에서 제시된 성평등을 고려한 정책개선

의견은 거의 대부분 신규 수립 계획 안에 반영되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처럼 담당공무원 및 부서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자체예산 자문의 방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 계획의 경우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과제수는 많지 않으나 그 내용이 방대하고 전문적인 사안을 다루고 있기에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거치는 자문 형태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게 수용될 수 있는 방식이나, 엄청난 양의 사업 분석평가의 경우는 위 방식이 아직까지 적용하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을 주관하고 있는 성별센터 담당자에 의하면,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수행과정을 보면 사업 담당 공무원이 컨설팅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편이라고 한다. 이렇게 각 사업 담당자들이 컨설팅 의견을 반영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분석평가서 작성 수준이 높아지고 적합한 정책개선 의견을 제시하게 되기까지는 지난 4년에 걸친 성별센터와 컨설턴트들의 상당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처음부터 다수의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작년까지는 아무 내용도 쓰지 않거나 일부 내용만 채운 채로 분석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고 한다. 공무원들에게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서 작성해야 할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고, 지표 적용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도 충분하지 않아 이런 요인들이 부실하게 작성된 분석평가서 제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해소하고 공무원의 분석평가서 작성 이해를 돕기 위해 성별센터에서는 대면 및 서면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파악하게 된 점은 대면컨설팅의 경우, 사업담당자와 컨설턴트가 처음 만나 사업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경우, 당장 그 자리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분석평가서 작성 방향 및 정책개선 의견 도출 과정에 대해 이해한 것 같아도, 대면 컨설팅이 끝난 후에는 내내 부실한 분석평가서를 제출한다는 점이었다. 즉 현장에 있을 때는 충분히 작성 방법과 분석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에 대해 이해한 것 같아도 실제로 분석평가서를 작성할 때는 막막함을 느끼면서 결국 내용이 부실한 분석평가서를 제출하더라는 것이었다.

대전 성별센터는 사업 담당공무원이 느끼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

# V. 사례 3: 대전광역시(광역자치단체) ●●● 71

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대면컨설팅이 이루어지기 3~4주 전부터 서면컨설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여, 먼저 서면컨설팅을 통해 분석평가서의 각 지표별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 관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대면 컨설팅을 통해 분석평가서에 담겨야 할 내용 및 필요한 정책개선 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컨설팅을 진행했을 때 분석평가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도나 컨설팅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파악하게 된 것이다. 2014년 대전시 동구에서 컨설팅을 이와 같이 운영하여 공무원의 만족도도 높았으며, 분석평가서의 작성도 충실하게 작성되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2015년에는 대전시 및 5개 자치구의 컨설팅 과정도 대전시 동구에서 진행하던 흐름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즉 하나의 분석평가서 작성이 완료되기까지 과정을 다시 살펴보면, 공무원이 제출한 최초의 분석평가서가 공란일 경우 성별센터의 전임연구원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참고해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사례<sup>15)</sup>와 관련 자료들을 다시 해당공무원에게 보내어 작성이 부실한 분석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수혜자 현황 등 꼭 필요한 정보를 기입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그 결과 최소한의 내용을 채운 분석평가서를 다시 보내오면 성별센터에서는 이를 컨설턴트에게 발송하여 서면 컨설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성별센터는 사업 담당공무원에게 컨설팅 의견을 다시 발송하여 부서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정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업담당자가 분석평가서를 고치게 되면 이 자료를 토대로 사업 담당공무원과 컨설턴트가 만나 분석평가서 작성 내용 및 정책개선안에 대해 최종 협의의를 거친 후 해당 자료를 최종 분석평가서로 제출하게 된다.

15) 대전시에서 2013년, 2015년 발간한 사례집 등을 활용하여 사업 담당공무원이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12년 이후 본격적인 제도 확산이 진행된 지 4년에 접어들게 되면서 각 정책분야별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통해 충실하게 작성된 분석평가서 및 성평등 개선조치를 적절하게 제시한 사례들이 다양하게 축적되었기에 이런 내용을 대전 성별센터에서는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공무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단계의 분석평가서 작성 지원 및 컨설팅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은 상당한 품이 드는 과정이다. 특히 상당수의 과제가 분석평가서에 있는 몇 가지 항목에 대해 공란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컨설팅이 지속되도록 하는 동력을 이끌어낸 것은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기관담당자와 컨설턴트의 의지였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컨설턴트 대부분은 성별센터에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작한 2012년 이래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맡고 있으며, 담당기관 및 담당 분야 또한 그대로 유지하여 해당 컨설턴트로 하여금 담당 기관 및 분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양질의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컨설팅 운영과 관련하여 성별센터 전임연구원은 올해는 그동안 해온 노력의 결과로 좀 더 보람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예측의 근거는 올해 사업 담당공무원들이 제출한 1차 분석평가서가 전년도에 비해 충실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공무원의 분석평가서 작성의 질 향상과 관련해, 심층면접에 응한 성별센터의 전임연구원과 컨설턴트는 이것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시행 4년차에 접어들면서 얻게 된 성과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즉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이 한 축으로는 정부의 모든 정책이 성평등을 고려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을 개선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면, 다른 한 축으로는 정책과정의 주요한 담당자인 공무원의 성 인지적인 감수성의 고양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공무원 스스로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행정기관 일선의 공무원이 성평등 관점에서 사업을 판단하고 수행하는 안목과 역량이 성장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대전시의 젠더 전문가들은 공무원의 충실한 분석평가서 작성을 제도 시행 4년차에 접어들면서 드러나게 된 성과의 일부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대전시의 제도추진 전반을 담당하였던 백 주무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그 내용 자체도 어려워서 담당자로서 상당한 공을 들여 공부해야 했고, 같은 기관의 공무원들의 비협조 또한 업무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되었지만, 어느 순간 태도가 달라진 동료들을 보면서 상당한 보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공란으로 제출되던 분석평가서가 어느 날부터 내용이 빠곡하게 채워져 오고 주변의 동료는 “내가 내 업무 관련해서 논문까지 보며 고민해본 것은 처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줄 때 혹은 “그동안 나 편한 대로만 생각해왔지만, 이런 성평등을 반영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됐을 때, 이런 주변의 변화가 더욱 열심히 사업에 임하게 되는 힘이 되었다고 한다. 즉 당장 눈에 띄는 성과는 아니더라도 대전시 공무원들의 이해, 관심, 분위기에서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4. [정책개선·모니터링 단계] 시민참여에서 평생교육까지, 성평등 감수성을 레벨업하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운영하면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바로 분석평가를 통해 각각의 정책을 성평등하게 개선하고 운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책개선을 이끌어내고 지속적인 환류를 점검하는 성 주류화 정책 모니터링 과정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는 2012년 법 시행 이래로 제도 확산 3년차에 접어드는 2014년에 여성가족부와 함께 대전시와 기초자치구의 각 부서에서 2012년 분석평가를 통해 제출한 정책개선안, 즉 성평등 조치사항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정책개선 이행점검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대전시에서 성 주류화 정책 추진 이행점검 모니터링을 수행하면서 또 하나 주요하게 염두에 두고 수행한 사업은 시민 모니터링단의 ‘심층모니터링’이었다. 한편으로는 2012년의 383개의 분석평가서를 토대로 각 사업 담당자들에게 정책개선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행점검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전 시민들에게 높은 파급력을 가질 만한 사업 분야를 별도로 선정하여 시민 모니터링단이 심층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사업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시민 모니터링단이 주력하여

살펴본 정책 분야는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도시공원 사업, 교육청 학교지킴이 사업 분야이다.

이와 같은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과 관련하여 대전시 성 주류화 정책개선 이행점검 모니터링을 총괄 책임지고 수행한 대전 성별영향평가센터장은 본 제도 운영 및 정책개선 이행점검이 의의를 가지려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지적하였다. 그 연장선상에서 시민사회 여성들의 의견이 정책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이에 10여 명의 여성들을 시민 모니터링단으로 모집하여 정책 모니터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지난 2012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대전시의 여성정책 추진과정 및 실효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2012년부터 정책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고려해 다년간 시민이 직접 발로 뛰어 점검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정책 모니터링을 수행해온 노하우 및 인적자원의 확보 과정이 있었기에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인다.

시민 모니터링단이 정책개선 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점검 지표는 전문가 집단인 중앙 및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개발한 후 교육을 통해 시민 모니터링단이 지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후 모니터링단은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사업계획서, 프로그램 내용 및 관련 문서 등을 일차로 점검하고, 해당 사업 분석평가서에서 제시한 성평등 조치사항이 차년도(2013년도, 2014년도)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었는지 등을 파악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과 관련한 웹페이지, 홍보자료, 현장 등을 관찰하는 활동을 병행하여 정책개선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모니터링 활동은 담당 공무원 및 이용자, 서비스 제공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 및 서비스 만족도 등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시민 모니터링단은 2012년 사업 중 점검을 수행한 4개 영역 사업의 정책개선 추진 성과 및 그 개선 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노력의 과정

## V. 사례 3: 대전광역시(광역자치단체) ●●● 75

등을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정책개선이 미진하여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발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 결과는 시민 모니터링단과 대전시의 점검 대상 영역 분야별 전문가, 젠더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함께 모인 워크숍을 통해 공유되었으며, 추가적인 정책개선 요구는 각 사업 분야별로 해당 부서에 공문으로 전달하여 추후 사업운영시 반영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된 대전시 성 주류화 정책 모니터링 활동은 대전시 제도 추진에 참여한 세 주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활동이었다. 시민 모니터링단 활동을 지원하면서 사업 전반을 주관한 성별센터의 젠더 전문가들은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니터링을 하면서 추가로 정리한 정책개선 필요성 및 정책개선 내용을 공무원들이 수용 가능한 범위 및 언어로 정리하는 과정을 모니터링단과 함께 고민했다. 그리고 모니터링 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기관 협조 및 공무원 면담 등은 여성가족청소년과의 기관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진행될 수 있었다. 기관담당공무원은 원활한 모니터링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지속적인 협조 요청을 진행하였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는 워크숍에 관련사업 공무원들이 모두 참석하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의 사업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기관담당자였던 백 주무관은 성별센터 및 컨설턴트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행정기관을 지원한다면, 행정기관의 기관담당자인 자신은 이런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력’을 발휘하는 것이 스스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대전시 제도 추진 과정에서 보인 각 주체들의 협력 과정을 설명했다. 즉 대전시에서 활동하는 젠더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인식과 역량, 행정기관의 실행력, 정책 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이를 통한 의견개진이 한데 어우러진 활동이 바로 대전시의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2014년에 추진한 시민 모니터링단의 활동 결과는 최종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사업과 관련하여 9개의 사업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추가로 제시한 정책개선건의가 각 사업에 반영되었는지를 2015년에



다시 한 번 점검한 결과, 9개의 개선의견 중 6개 개선조치가 이행되었으며, 3개 사업에 대한 개선은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선 미이행 사업의 경우, 정책개선이 추진되지 않은 주요한 원인은 바로 해당 사업 담당공무원이 타 부서로 옮겨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에 사업 개선 요청의 취지를 설득하고 함께 고민했던 담당자들이 모두 타 부서로 이동하면서, 새로 사업을 맡게 된 담당공무원들은 자신이 맡은 사업과 관련해 성평등을 고려한 정책개선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 의지와 정성을 들여 정책개선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컨설턴트는 제도의 취지와 개선의견을 제시한 목적이나 개선 필요성 등을 다시 한 번 설득해야 한다. 이처럼 행정기관 내의 잦은 인사이동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사업담당자가 계속 바뀌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한 가지 사업에 대한 정책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환류과정을 점검하는 과정이 지속되어야 한다.

정책환류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행정기관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5년 현 시점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후 제도가 확산된 지 4년차라고는 해도 아직까지 제도수행 주체인 공직사회 내에서는 제도개선의 의의에 대한 동의가 폭넓게 확산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 위해서 부가적인 노력과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이 사례가 보여준다.

지금까지 대전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참여 확대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효과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해왔으며 실행 주체들 사이에서 제도의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동의를 넓혀가는 데 집중해왔다고 보인다. 앞으로는 대전시가 정책개선안을 점검하고 환류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의 역량을 모아 행정기관의 실질적인 정책개선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시민이 참여하여 성 주류화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활동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해당 과제(법령, 계획, 사업 등)에 한해 업무

V. 사례 3: 대전광역시(광역자치단체) ●●● 77

담당자가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과제에서 젠더 이슈를 찾아내고 성평등한 정책환경을 만들기 위한 행위주체들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한 일례를 소개하면,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했던 대전 및 전국여성단체의 한 활동가는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대전의 평생교육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추진과정 및 현황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평생교육사업의 성평등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개선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행정기관에 제시한 결과, 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는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에 해당 개선의견을 포함하여 조례개정(2015.7.1.시행)<sup>16)</sup>을 추진하였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을 겸임하면서 대전시 시민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했던 임 사무처장과의 면접내용에 의하면, 임 사무처장이 2012년 처음 성 주류화 정책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대전의 평생교육사업과 관련해 문제의식을 갖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내에서 성평등 전문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강사로 활동하다 보면 공무원이 연간 성평등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서, 평균 80시간가량을 교육프로그램 이수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교육을 받는 그 시점에는 성평등과 관련하여 이해를 한 듯해도 교육장을 나오는 순간 변화된 관점을 갖고 다양한 사회 현상을 바라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교육 커리큘럼도 지속적인 업데이트 없이 반복된 내용을 활용하면서 수강자들의 흥미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어, 임 사무처장은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주도하는 교육이 이 많은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성평등을 전달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고민

16) 대전시는 2014년 기존의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로 개정하기 위해 대전시와 지역사회 내 전문가 및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2015년 6월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을 완료하였다(2015.7.1.시행).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대전시 평생교육사업 추진시 ‘성평등 교육 노력 의무’를 명시한 조항 또한 지난 6월 개정된 조례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다.

을 갖고 2012년부터 대전의 기초자치구 사업 분석평가 컨설팅, 대전시 성주류화 정책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평생교육사업을 접하게 되었을 때, 임 사무처장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성평등 관련 교육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필요하며, 평생교육사업이 이런 성평등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주요한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맨 처음 제시했던 평생교육사업 개선 내용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중 성평등 관련 교육을 개설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막상 교육을 개설하고 보니 시민들이 도배·장판 기술 교육은 수강해도 성평등 관련 교육은 수강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기술과 취미를 위한 교육은 수강자들이 넘쳐나도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 성평등 감수성을 변화시키는 의식 교육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분위기였다.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추진은 정책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과정이지만, 성평등 정책이 지향하는 가치를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는 “수요를 반영한 정책실현”이 사회적 성평등을 이끌어내는 데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점이기도 하다. 바꿔 말해 성평등 사회의 실현은 시민들의 의식 변화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성평등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파악한 임 사무처장은 발상을 전환하여 평생교육기관에서 ‘성평등 관련 교육을 개설’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내용을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시 반영할 것을 적극 피력한 결과, 2015년 7월 1일자로 개정 시행 중인 해당 조례에는 다음과 같이 기존의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적용되던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의무화뿐만 아니라(제10조), 평생교육사업 운영시 1개월 이상 지속사업의 경우 성평등 교육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제17조)이 추가되었다. 이에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sup>17)</sup>

17) 심층면접 결과 임 사무처장은 대전시의 경우 2012년 이래 여러 정책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기에, 여성단체가 제기한 평생교육사업 내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는 의견을 해당 조례 소관 부서인 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적극 수렴하여 조례개정시 반영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전시의 이런 특징과 관련하여 그 배경을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간략하게

###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제10조(성인지 교육)**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생애 주기별 성인지 교육 이수제도(“공직생애 주기별 성인지 교육 이수제도”란 신규임용 등 직급별 직위에 맞는 수준별 맞춤형 성인지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시행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1주 이상 교육 과정에 성인지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성평등 교육)** ① 시장은 공립 연수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등에서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교육에는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문화센터에 1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출강하는 강사들에게 성평등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 내용에 평생교육사업 시 ‘성평등 교육 노력’이 담길 수 있었던 성과를 보면, 공무원이 작성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제시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을 토대로 한 정책개선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대전시 성 주류화 추진 주체들이 성 주류화 모니터링 사업을 하면서 성평등한 정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여성단체가 새롭게 제시한 제도 개선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시민단체 활동가가 성별영향분석

마나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정책환경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2012년은 행정기관의 경우 성 주류화의 주요 정책도구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되는 시점이었고, 대전의 여성정책연구기관인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별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지자체의 제도추진 과정 전반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추진체계 구축에 힘을 쏟게 되는 시기였으며, 민간차원에서는 대전여성단체연합이 생겨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성평등 및 성주류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활력을 불어넣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던 시점이었다. 이런 시기에 행정기관과 성별센터와 민간기관, 의회는 연간 2~3차례 만남을 지속하면서 여성정책 관련 사안을 논의하였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런 지역사회 각 주체들이 호의적이면서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 온 경험에 기반을 두어 대전시의 성평등 관련 정책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2015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을 이루어내는 등의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한다.



## 80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개선 활성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연구

평가의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이루어낸 젠더 거버넌스 실천의 결실의 하나이며 제도개선의 의의가 큰 사례이다.

## VI

### 사례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기초자치단체)

1. 세 바퀴로 달리는 성평등 자전거 83
2. [과제선정 단계] 과제선정위원회를 만들다 85
3. [분석평가 단계] 자전거도 성 중립적이지 않다, 성별 요구의 A to Z 88
4. [정책개선·모니터링 단계] 더 좋은 예산, 더 좋은 의회는 있다! 91



## 1. 세 바퀴로 달리는 성평등 자전거

서대문구는 서울시가 젠더 거버넌스에 기초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활성화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제시된 정책개선안을 시민단체가 적극 모니터링하여 실질적인 정책환류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참여한 정책 행위자들을 비롯해 이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 부문에서는 제도 운영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로 여성가족과가 있고, 여성정책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제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보좌관의 활동이 활발한 편이다. 둘째, 서대문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대학원생이 6년간 지속적으로 공무원 컨설팅뿐 아니라 시민단체 모임에 참여하면서 민관 협력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서대문구가 추진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에 큰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는 풀뿌리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여성 의원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의 법적 기반이 되는 조례를 제·개정하고 의정 감사를 하면서 공공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 환경에서 공무원과 젠더 전문가, 시민단체와 의회 의원 간의 협력이 제도 운영의 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먼저 대상과제 선정 과정을 살펴보자. 서울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전년도에 수행했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목록을 서대문구에 제공하고, 그 목록을 보면서 기관담당 공무원은 업무담당 공무원들과 협의하여 대상과제 목록을 1차 선정했다. 이어서 기관담당자는 젠더 전문가인 서대문구 담당 컨설턴트와 의논해서 2015년도 대상과제안을 2차로 선정했고, 그러한 대상과제안은 서대문구가 운영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둘째로, 분석평가서 작성 과정을 보자. 먼저 업무담당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교육을 받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한 뒤, 컨설턴트와 만나 1차로 1:1 대면 컨설팅을 받고, 다시 2차로 이메일을 통해 서면 컨설팅을 받았다.

셋째, 서대문구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한 정책개선안은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에 포함되었다. 이를테면 ‘자전거 이용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개선



안에는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한 공영 자전거 구입, 여성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자전거 거치대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The 좋은 예산’이라는 시민단체가 나서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환류를 위한 모니터링 사업을 하였다.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새롭게 제안된 내용은 자전거 거치대를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분산 배치하도록 하는 것과, 방치된 폐자전거를 재활용하는 사업에 구청이 관심을 갖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 또한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공기주입기를 수동식에서 기계식으로 교체할 것이 요구되었다. 즉,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공무원이 제시한 정책개선안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면서 ‘자전거 이용시설물 정비사업’이 성평등한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서울시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추진과정의 특징 및 정책개선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는 서대문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과 기관담당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활동이 활발했던 서대문구 의원, 서울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소속으로 5년간 서대문구를 전담한 컨설턴트를 면접 조사하였다. 면접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서대문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VI-1〉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

단계 (과정)	행위자(actors)		행위결과
	주체자	조력자	절차적 개선
대상과제 선정	- 기관 담당자	- 업무담당자 - 젠더전문가	1차 : 기관담당자-사업담당자 협의 2차 : 기관담당자-컨설턴트 협의 3차 : 과제선정위원회가 최종확정
분석평가서 작성	- 업무 담당자	- 젠더전문가	1차 : 업무담당자가 분석평가서 초안 작성 2차 : 컨설턴트가 대면 컨설팅 제공 3차 : 컨설턴트가 서면 컨설팅 제공
정책개선·모니터링	- 공무원, NGO	- 의원 - 젠더전문가	1차 : 업무담당자가 정책개선안 제시 -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우수사례(자전거이용 시설물 정비) 2차: NGO 모니터링 결과, 개선안 제안 - 여성친화적 자전거 구입, 거치대 설치 등 3차: NGO 모니터링 결과, 관련 조례의 개정요구

## 2. [과제선정 단계] 과제선정위원회를 만들다

서대문구가 2015년에 최종적으로 선정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은 총 27개로, 담당부서를 보면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 어르신청소년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대상과제가 선정된 과정을 보면 공무원과 컨설턴트, 과제선정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참여했음을 알게 된다.

먼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목록이 서울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부터 주어지면 기관담당자는 전 부서에 걸쳐서 협조 요청을 하고 사업담당부서와 협의하면서 1차로 대상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서대문구의 조직은 5개 국·28개 과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자치국에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 교육지원과가 있고, 경제재정국에는 일자리경제과, 지역활성화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가 있다. 또 복지문화국에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청소년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가 있으며, 환경도시국에는 도시재정비과,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환경과, 청소행정과가 있다. 또한 안전건설교통국에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안전치수과, 푸른도시과, 교통행정과, 교통관리과가 있다.



[그림 VI-1] 서대문구 행정조직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인 여성가족과는 복지문화국에 소속되어 있다. 기관담당자는 타 부서와 협의하여 1차로 선정한 대상과제안을 두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와 의논하여 성별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2차 선정에 들어갔다. 컨설턴트와의 면담 내용에 의하면, 서대문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이 서면으로 대상과제안을 보면서 선정 요청을 하였고, 전년도에 했던 과제와 신규 과제를 40여 개 주었다고 한다. 이에 컨설턴트는 그 대상과제 목록을 보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할 만한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해 대상과제로 적합하지 않는 사업은 제외시키고 수정한 대상과제 목록을 기관담당자에 보냈다고 한다.

이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의 목록이 최종확정된 것은 서대문구가 별도로 구성한 과제선정위원회에서였다. 일부 공무원들은, 성평등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으니 그 위원회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안을 심의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성평등위원회 위원들 중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위원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또 다른 의견이 내부에서 제시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선정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게 되었다고 한다.

과제선정위원회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심이 많은 정책보좌관을 포함한 공무원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들로 구성하였다. 3단계에 걸쳐 선정된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목록은 <표 VI-2>와 같다. 27개 대상과제 중 지속 과제는 10개(37개)로 전년도와 동일한 과제가 2015년 대상과제에 포함되었고, 신규 과제는 17개(63%)로 2015년에 새롭게 포함된 과제이다.

Ⅶ. 사례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기초자치단체) ●●● 87

〈표 Ⅶ-2〉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2015)

번호	담당부서	사업명	구분	번호	담당부서	사업명	구분
1	감사담당관	시민감사 옴부즈만 운영	지속 과제	15	일자리 경제과	중소기금육성기금	신규 과제
2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운영활성화	지속 과제	16	복지정책과	이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신규 과제
3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속 과제	17	어르신 청소년과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신규 과제
4	일자리 경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속 과제	18	어르신 청소년과	노인회지회 운영지원	신규 과제
5	사회복지과	자활근로사업	지속 과제	19	문화체육과	생활체육 동호회 지원	신규 과제
6	어르신 청소년과	노인돌봄 서비스	지속 과제	20	여성가족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신규 과제
7	여성가족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속 과제	21	도시관리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신규 과제
8	건축과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지속 과제	22	청소행정과	쓰레기감량 대면홍보	신규 과제
9	청소행정과	공중화장실 개선	지속 과제	23	푸른도시과	공원내 CCTV 설치사업	신규 과제
10	교통행정과	자전거이용 시설물 정비	지속 과제	24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정비	신규 과제
11	정책기획 담당관	주민참여 예산제	신규 과제	25	교통관리과	공영주차장 조성	신규 과제
12	행정지원과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신규 과제	26	구의회 사무국	의정활동 지원기능강화	신규 과제
13	행정지원과	공무원 해외공무 및 기획연수	신규 과제	27	의약과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신규 과제
14	전산정보과	CCTV표지판 정비 및 설치	신규 과제				

출처: 서대문구(2015a). 「2015년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목록」. 내부자료.

### 3. [분석평가 단계] 자전거도 성 중립적이지 않다, 성별 요구의 A to Z

서울시는 서대문구를 포함한 25개 자치구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할 때 신규 과제를 50% 이상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매년 여성정책 우수 자치구를 선정해 인센티브 예산을 제공함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들은 포상을 받기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평가지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 평가지표 중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항목이 있는데, ‘신규 사업을 50% 이상 선정’했는지의 여부와 ‘거버넌스 실천’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2014년에 서대문구가 수행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는 법령과 사업을 포함해서 모두 59개이다. 이중 제·개정 중인 조례와 시행규칙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한 건수가 38개(64.4%)이며,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한 건수는 21개(35.6%)이다.<sup>18)</sup>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보면, 개선사항으로 제시되는 내용의 대부분이 ‘위촉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개선안 반영’이다. 또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의 경우, ‘공중화장실 신·개축시 여성용 변기 수 확충’, ‘여성 및 영유아 편의시설 확대’ 등이 주요 정책개선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다. 특히 ‘자전거 이용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개선 내용이 눈에 띈다.

서대문구가 ‘자전거 이용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대문구 내 여성 인구수가 높음에도 여성의 자전거 보유율 및 활용률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여성의 자전거 활용을 높이고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자전거 거치대의 내·외부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련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자전거 이용 욕구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의 탄소 발생을 줄여 대기 환경을 쾌적하게 바꾸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목적을 갖고 실시했던 ‘자전거 이용시설물 정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18) 서대문구(2015c).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 내부자료.

## Ⅶ. 사례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기초자치단체) ●●● 89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안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자전거 활용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교육 기회 제공이다. 이를테면 가재울 3구역 단지 내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교통안전교실’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둘째, 자전거 거치대 및 관련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여성이 사용하기 편리한 공기주입기를 신설한다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담당하는 기관담당자에게는 60여 개나 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업무담당자들에게 작성하도록 하고 취합하는 업무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고 한다. 이에 담당 컨설턴트는 업무담당자들에게 자문을 제공하면서 분석평가서를 완성하도록 돕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과 계획, 사업에 대해 수행하도록 되고 있는데, 서대문구의 경우 분석평가 대상이 되는 계획은 없었다. 또한 법령의 경우, 제·개정 중인 조례나 규칙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분석 대상이 되는 조문이 적게는 하나의 단어이거나 많게는 몇 개의 조항이 되기 때문에 분석평가를 통해서 제시할 만한 개선사항이 없거나 유사한 내용이 많다. 예를 들어 위원회에서의 성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특정 성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반면에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인적 대상사업뿐 아니라 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등을 포괄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대상과제가 선정될 수 있다. 그래서 업무담당자들이 분석평가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정책개선안을 도출할 것인지 그 내용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편이며, 분석평가서의 질적 수준에서 볼 때 그 편차가 크다.

컨설턴트와의 면담 내용에 의하면, 분석 대상이 되는 사업이 성별 관련성이 별로 없다고 업무담당자가 판단하게 되면 분석평가서의 내용이 간소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반면에 업무담당자가 분석 대상 사업을 보면서 성별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분석평가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되면, 정책환류가 가능한 정책개선안을 제시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15년 5월에 작성된 ‘자전거 이용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살펴보면, 사업 목적과 주요 사업 내용에서 성별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 목적으로는 ‘여성들이 공용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자전거 이용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주요 사업 내용에는 자전거 거치대의 신규 설치가 포함

되어 있고, 여기에는 ‘관내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지역에 여성친화형 자전거 거치대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개선안은 해당사업이 지난 3년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속 과제로 수행되면서 개선안에 대한 정책환류 점검이 이루어지는 한편, 동일 사업에 대해 새로운 개선안이 도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평가서의 각 항목을 보면, 업무담당자가 제시한 분석의 내용이 흥미롭다. 업무담당자가 컨설팅을 받으면서 작성한 분석평가서에 의하면, 자전거 이용에서 성별 요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첫째,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가 다르다는 것이다. 즉, 남성에 비해 여성은 자전거 보유 및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자전거가 레저용이 아닌 생활교통수단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sup>19)</sup>

둘째, 남녀의 경제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가 다르다고 기술하면서 그 이유로 자전거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레저용 또는 청소년의 운동용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해도 여성은 자신만을 위해 생활용 자전거를 바로 구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여성이 근거리에서 처리할 일들(장보기, 공공기관 방문 등)을 하면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즉,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확충하여, 자전거를 보유하지 못한 여성도 자전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남녀의 신체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가 다르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 평균적인 자전거 무게는 13~17kg 정도인데, 저가형이고 보급형일수록 스틸 프레임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한다. 여성은 개인차가 있지만 근육량과 그에 따른 근력이 남성의 50% 정도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자전거를 이동하거나 보관할 때 들어 올리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자전거 이용시설물 정비사업’은 사업명만 보았을 때는 성 중립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 인지적인 관점에서 해당 사업을 분석하게 되면 성별에 따른 요구에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러한 차이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남성 중심의 사업으로 실행될 수 있다. 즉,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남성

19) 서대문구(2015b). 「2015년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서(사업)」. 내부자료.

## Ⅶ. 사례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기초자치단체) ●● 91

의 관점에서 ‘자전거 이용시설물 정비사업’을 운영하였다면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 사회문화적 차이, 경제적 차이가 고려되지 않음으로써 여성들은 정책 수행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서 제시된 정책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들이 공용자전거를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남녀 공용 모델인 공영자전거를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용 공영자전거’ 5대를 추가로 구매하도록 했다. 둘째, 자전거 거치대를 이용할 때 여성과 아동이 편리하도록, 자전거를 밀어서 거치하는 수평형 거치대를 3개소 추가 설치하도록 했다. 셋째, 여성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자전거 거치대를 일제히 점검하여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장소를 조사하고, 그곳에 우선적으로 수평형 거치대를 신설하도록 한 것이다.

### 4. [정책개선·모니터링 단계] 더 좋은 예산, 더 좋은 의회는 있다!

‘자전거 이용시설물 정비사업’은 서대문구가 수행했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중 지속 과제에 해당되는데, 지속 과제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전년도에 제시된 개선 내용이 그 다음해에 실제로 개선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에는 해당사업이 분석평가의 신규 과제인지 아니면 지속 과제인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서대문구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해당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해왔는데, ‘자전거 이용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의 내용을 보면,<sup>20)</sup> 개선 내용이 실제로 정부사업에 반영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환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공영자전거가 남성 편의적인 모델로 구입되고 있는 상태에서 2012년에는 여성용 자전거를 27대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5년 분석평가서를 보면,<sup>21)</sup> 여성친화형 자전거를 2014년에 35대, 2015년에 40대 구입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여성용 자전거 구입을 늘려나간 것으로 나타나 있다.

20) 서대문구(2012). 「2012년도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서(사업)」. 내부자료

21) 서대문구(2015). 「2015년도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서(사업)」. 내부자료



〈표 VI-3〉 연도별 여성친화형 자전거 구입현황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공영자전거 구입	27대	40대	35대

자료: 서대문구(2012; 2015b)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내부자료.

뿐만 아니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안이 생활 현장에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체감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통해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자전거 보관시설의 경우, 자전거를 들어서 거치하는 것보다는 밀어서 거치하는 수평형 거치대로 변경하면 근력이 약한 여성과 아동이 사용하기 편리해진 다. 이러한 시설물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편리함을 제공해줄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시민단체가 협력하는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에 기초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사업을 적극 지원해 왔다. 서대문구도 그 사업에 참여했으며,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중 ‘The 좋은 예산’<sup>22)</sup> ‘자전거 이용시설물 정비사업’의 모니터링 사업에 나섰다. 이 단체에서 회원들과 함께 모니터링 사업에 참여했던 컨설턴트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무엇인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회원들에게 제공했고,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를 회원들과 함께 만들었다.

모니터링 지표의 구성을 보면,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①공공기관 자전거 친화도 ②자전거 거치대 ③공영자전거시스템 ④종합 등이다. 여기서 ①~③은 모니터링 대상이 다를 뿐 아니라 모니터링 장소도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전거 거치대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장소에 모니터링단원이 찾아가야 하며, 공공기관 자전거 친화도는 자전거 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여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게 된다. 예컨대,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여성과 노인, 아동이 사용하기 적절한지 여부를 파악하도록 하는 경우 등이다. 또 모니터링 대상 유형 중 자전거 거치대와 공영자전거 시스템의 경우는 질문 내용에 여성, 노약자, 어린이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해서 자전거 거치대의 보관 방식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여성과 노인, 어린

22) 서대문구의 성인지예산 모니터링 모임인 ‘The 좋은 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토대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서대문 주민들의 모임이다 (2014a; 2014b).

자료: The 좋은 예산(2015). 내부자료.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대문구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실시했던 모니터링 결과는 흥미로웠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정부사업에 여성의 시각과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여성들의 요구는 여성뿐 아니라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공공시설 이용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시민단체가 ‘자전거 이용시설물 정비사업’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집중 모니터링을 하면서 두드러지게 변화가 나타난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자전거 거치대의 높이를 낮추고 자전거를 들어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밀어서 고정하는 방식의 수평형 거치대가 서대문구 곳곳에 설치된 것이다. 아래의 왼쪽 사진은 자전거를 들어서 거치하는 방식이고 오른쪽 사진은 밀어서 거치하는 방식이다.



자료: 서대문구(2015). 「2015년도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서(사업)」. 내부자료.

[그림 VI-2] 서대문구의 자전거 거치대 교체 전과 후 사진

두 번째로 시민단체는 모니터링 사업을 하면서 해당사업에 대한 개선안을 새롭게 제시하기도 하였다. 자전거 거치대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 Ⅶ. 사례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기초자치단체) ●●● 95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게 되어 있고, 생활형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여성들에게는 자전거 거치대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지 않아 불편했던 정도가 더 컸다. ‘The 좋은 예산’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서대문구에는 자전거 거치대가 모두 75개가 있는데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거나 후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자전거 거치대를 마트나 슈퍼마켓 등이 밀집된 장소 가까이 분산 배치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또한 신축 건물이나 공공건물의 주차공간의 일정부분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의무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자료: The 좋은 예산(2014), 「자전거로 동네한바퀴」, 내부자료.

[그림 Ⅶ-3] 서대문구의 자전거 거치대 위치도

무엇보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시설물 개선이 필요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뿐 아니라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제안이 2014년에 개최된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모니터링 발표 및 담당부서 간담회’에서 제시되었다. 서대문구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2015년

에는 해당사업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에 포함시켰다. 이 자료를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의해 지정된 성인지예산은 시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sup>23)</sup>

이 지역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배경에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8년간 이 지역에서 활동한 의원의 역할이 크다. 이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노인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sup>24)</sup> 이후 구청의 정책보좌관으로 활동하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을 위해 과제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한다. 의회 내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5년 5월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 발의되었다고 한다. 이에 앞서 2012년 10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기본조례’의 제43조(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를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성인지 교육뿐 아니라 활동 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 
- 23) 시민단체가 간담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대문구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의해 지정된 성인지 예산은 전체 구 예산의 10%에 이를 정도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인지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The 좋은 예산(2014).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모니터링발표 및 담당부서 간담회 자료」)
- 24) 서대문구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여성위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의무사항입니다. 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봐요. 요즘은 여성노인의 욕구하고 남성노인의 욕구, 살아온 경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의 욕구를 대변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반반으로 해야 해요. 여성의 리더십이 아직 키워지지 못한 상태라면 적어도 30%라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고민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서대문구 의회 회의록-제6대-제203회-제1차-행정복지위원회-2014.2.28.).

## Ⅶ. 사례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기초자치단체) ●● 97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 2012. 10.10 조례 제 969호

제40조(성별영향분석평가)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결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서대문구가 수행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과정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자전거 이용시설물 정비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그 사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컨설팅트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정책개선안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충실하게 작성된 분석평가서와 적절하게 제시된 정책개선안은 2013년에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게 되면서 이 지역에서 공무원과 시민단체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후에는 정책개선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고, 해당사업이 연속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되면서 정책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개선안이 추가로 이어졌다. 이러한 개선안은 시민단체의 회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진행한 2014년과 2015년의 모니터링에 의해 새롭게 제시된 내용인 것이다. 시민단체가 만든 모니터링 지표에 의해서 제시된 개선안은 자전거 거치대의 위치를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제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동일한 사업을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어졌다. 또한 여성과 아동뿐 아니라 자전거를 타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 대여소에서 헬멧

을 빌려가지 않으면 자전거를 빌려주지 않도록 의무 규정을 만들자는 내용이 주민 의견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용어부터가 생소하다. 실제로 2014년부터 자전거 거치대가 ‘들어 올리는 형’에서 ‘밀어 넣는 형’으로 바뀌게 된 것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사업 방식을 바꾼 결과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근력이 약한 아동과 노인에게 일차적으로 혜택을 줄 것이며,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과 아동, 노인들이 자전거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정부사업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여성들은 자신들이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성평등한 세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힘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체감형 제도로 바꾸어가는 힘이기도 하다.

## VII

# 결 론: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스토리텔링하다

1. 과제선정단계 : 주요정책 선정과  
기관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101
2. 분석평가서 작성단계 : 업무담당자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전문가의  
체계적인 지원 103
3. 정책개선·모니터링 단계: 정책개선  
이행점검과 민관협력의 확대 104





본 연구는 스토리텔링이 정책연구의 한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정부기관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책행위자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으며 정책개선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그 과정을 스토리텔링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안이 환류되는 과정을 결과 중심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과정 중심으로 접근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행과 정책환류를 구체적이고 역동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개선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활발하게 운영해 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4개 기관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정책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 1. 과제선정단계 : 주요정책 선정과 기관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농촌진흥청이 성별영향분석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을 보면, 1차 기관담당자가 컨설턴트와 협의해서 대상과제 목록을 작성하고 2차 업무담당자와 협의해서 분석대상 과제를 정하고 있다. 이에 어떠한 정책이나 사업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로 선정할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업무담당자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경기도가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을 보면 농촌진흥청과 유사하다. 1차 기관담당자가 대상과제 목록안을 작성하고 2차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연구원, 컨설턴트와 협의를 한 다음 3차 기관담당자가 사업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최종 확정한다.

대전광역시시는 타 기관과 달리 대상과제 선정을 위해 공무원들이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1차 업무 담당자가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점수를 부여하면 그것을 취합해서 대상과제 목록안을 만든다. 2차 기관담당자가 컨설턴트와 협의해서 목록안을 수정한 다음 3차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 목록안을 상정해서 확정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서대문구의 대상과제 선정 절차를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전년도 대상과제 목록을 제공하면 기관 담당자가 컨설턴트와 협의하여 대상과제 목록안을 작성한다. 2차 기관담당자가 업무담당자와 협의해서 목록

안을 수정하고 3차 과제선정위원회가 대상과제 목록안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표 VII-1〉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절차

구분	농촌진흥청	경기도	대전광역시	서울시 서대문구
1차	기관담당자 - 과제선정목록안 작성	기관담당자 - 과제선정 목록안 작성	기관담당자 - 업무담당자에게 대상과제 선정 체크 리스트 작성 요청	기관담당자 - 사업담당자 협의
2차	기관담당자 - 컨설턴트 협의	기관담당자 - GIA센터, 컨설턴트 협의	기관담당자 - 컨설턴트 협의	기관담당자 - 컨설턴트 협의
3차	기관담당자 - 사업담당부서 최종확정	기관담당자 - 사업담당부서 최종 확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가 최종 확정	과제선정위원회가 최종 확정

기관별로 대상과제의 선정절차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기관담당자가 대상과제 선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대상과제로 선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성별관련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할 경우 의미있는 정책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관담당 공무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담당자의 업무를 전문직위제로 지정해서 최소 4년간 연속해서 근무하도록 하거나 젠더 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해서 기관담당자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2. 분석평가서 작성단계 : 업무담당자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전문가의 체계적인 지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작성하는 과정에서 분석평가 항목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적절한 정책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는 업무담당자는 여성과 남성이 처한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르고 신체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별차이가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기획되거나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젠더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농촌진흥청의 분석평가서 작성과정을 보면, 1차 기관담당자가 업무담당자에게 작성양식과 작성사례를 업무담당자에게 제공하고 2차 업무담당자는 자신이 작성한 분석평가서에 대해 컨설턴트로부터 대면 또는 서면으로 컨설팅을 받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는 대상과제가 선정된 이후 업무담당자들이 참석한 소규모 집합교육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대면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후에 업무담당자가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면 담당 컨설턴트가 과제별로 대면 또는 서면 컨설팅을 하도록 해서 분석평가서가 완성되도록 하는 절차를 갖는다.

대전광역시시는 타 기관과 달리 대면 컨설팅 이전에 서면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1차 업무담당자가 분석평가서 초안을 작성하면 2차 컨설턴트가 서면으로 자문을 제공해서 분석평가서를 보완하도록 한다. 이때 컨설턴트는 분석대상 사업과 관련된 통계자료, 사업보고서 등의 정책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3차로 업무담당자와 컨설턴트가 만나서 최종적으로 분석평가서를 보완해서 완성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서대문구의 분석평가서 작성과정을 보면, 1차 업무담당자가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면 2차 업무담당자를 위한 집합교육을 하고 그 자리에서 대면 컨설팅이 이루어지면서 업무담당자가 분석평가 항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3차에서는 업무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서면 컨설팅을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분석평가서를 완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업무담당 공무원의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력이 관건이다. 분석대상 사업에서 어떠한 성별차이가 있는지 파악한 다음 적절한 정책개선안이 제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무담당자의 성인지력이 향상되도록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과 컨설턴트간의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컨설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Ⅶ-2〉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과정

구분	농촌진흥청	경기도	대전광역시	서울시 서대문구
1차	기관담당자가 업무 담당자에게 작성양식, 작성사례 제공	업무담당자를 위한 소규모 집합 교육 및 대면 컨설팅	업무담당자가 분석평가서 초안 작성	업무담당자가 분석평가서 초안 작성
2차	업무담당자가 분석평가서 초안 작성	업무담당자가 분석평가서 초안 작성	컨설턴트가 서면 컨설팅 제공	컨설턴트가 대면 컨설팅 제공
3차	과제별 대면/서면 컨설팅	과제별 대면/서면 컨설팅	컨설턴트가 대면 컨설팅 제공	컨설턴트가 서면 컨설팅 제공

### 3. 정책개선·모니터링 단계: 정책개선 이행점검과 민관협력의 확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안이 실제로 개선되는지는 두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행위자 중심으로 보면, 공무원이 주도하면서 환류점검을 하거나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둘째, 시민사회가 참여하면서 시민이 정책개선의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이 주도하면서 공무원과 협력하는 방식이다.

농촌진흥청은 정책개선을 위해 1차로 기관담당자가 환류점검 계획을 세우고 이어서 업무담당자는 정책개선 이행실적을 제출하며 기관담당자가 업무

Ⅶ. 결 론: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스토리텔링하다 ●●● 105

담당자들로부터 취합한 정책개선 이행실적을 포함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여성가족부에 제출한다. 경기도는 기관담당자가 사업과제별로 정책개선안을 정리해서 업무담당자에게 제공하고 이어서 기관담당자가 정책환류 점검 계획을 제출한다. 최종적으로 기관담당자는 연말에 업무담당자로부터 정책개선 결과를 취합해서 연초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는 종합분석결과보고서에 포함시킨다.

대전광역시도 업무담당자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한 정책개선안, 정책개선현황을 기관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이어서 시민모니터링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의 성과를 기관담당자가 파악해서 종합분석결과서에 포함시킨다. 서울시 서대문구의 정책개선·모니터링 과정을 개선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면, 업무담당자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한 정책개선안을 시민단체가 모니터링한다. 이어서 모니터링 결과, 보다 구체적인 개선안이 제시되었고 그러한 개선안을 정책환류로 연결시키기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는 절차로 이어지고 있다.

〈표 Ⅶ-3〉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모니터링 절차

구분	농촌진흥청	경기도	대전광역시	서울시 서대문구
1차	기관담당자가 환류 점검 계획 예고(연초)	- 기관담당자가 환류 점검 예고(연초) - 사업과제별 정책 개선안 정리해서 업무 담당자에게 제공	업무담당자가 정책 개선안, 정책개선현황 제출	1차 : 업무담당자가 정책개선안 제시
2차	업무담당자가 정책 개선 실적 제출	기관담당자가 환류점검 계획 2차 예고	시민모니터링 결과, 정책개선 성과 파악	2차 : NGO 모니터링 결과, 개선안 제안
3차	기관담당자가 환류 결과를 취합	업무담당자는 기관담당 자에게 환류결과 제출 (연말)	기관담당자가 정책 개선 실적 취합	NGO 모니터링 결과, 관련 조례의 개정요구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안은 단년  
도에 정책개선이 이행되기 보다는 몇 년간 지속되며 시민단체가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개선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볼 때, 정책 개선의 실질적인 성과는 일반 시민이 정책개선의 결과를 어느정도 체감하는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 스토리텔링은 정책 수혜자를 포함한 연구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행정기관의 경우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스토리텔링의 확산을 위해서는 정책행위자들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딪혔던 갈등과 난제들을 해결한 사례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2015).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제출서」. 내부자료.
- 경기도(2015). 「2014년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보고」. 내부자료.
- 김경희·양애경·문유경·김둘순·송치선·남궁윤영·박기남·류연규(2010).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Ⅲ):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구(2013). “공공조직에서 암묵지식 이전을 위한 스토리텔링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준비”.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1) . pp.1-26.
-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2015).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의 과정」.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내부자료.
- 김둘순(2008).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김둘순·민무숙·김경희·남궁윤영(2011). 『이공계대 인턴십 운영 성과 및 성 인지적 분석』. 농촌진흥청.
- 김둘순·김경희·최유진·박복순·김동식·송효진·장운선·문희영(2012).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중앙행정기관 컨설팅 지원 위탁사업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김둘순·김경희·최유진·박복순·김동식·문지영·문희영·김지혜·이슬·류경연(2013).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중앙행정기관 컨설팅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농촌진흥청(2010a). 「농기계훈련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내부자료.
- 농촌진흥청(2010b). 「2010년 농촌진흥청 성별영향평가 최종결과 보고서」. 내부자료.
- 농촌진흥청(2012). 「농업인대학운영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내부자료.
- 농촌진흥청(2015a). 「2016년 농기계교육사업 교육용농기계 선정심의회 개최 결과」. 내부자료.
- 농촌진흥청(2015b).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 내부자료.
- The 좋은 예산(2014a). 「자전거로 동네한바퀴」. 내부자료.
- The 좋은 예산(2014b).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모니터링발표 및 담당부서 간담회 자료」. 내부자료.
- The 좋은 예산(2015). 「서대문구 자전거 이용시설 모니터링 Check List」. 내부자료.
- 박노동·주혜진·김학실·정경태(2012).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추진 거버넌스 구축



- 대전지역의 문화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서대문구(2012). 「2012년도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서(사업)」. 내부자료.
- 서대문구(2015a). 「2015년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목록」. 내부자료.
- 서대문구(2015b). 「2015년도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서(사업)」. 내부자료.
- 서대문구(2015c).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 내부자료.
- 서대문구 의회(2014). 「회의록-제6대 제203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014.2.28. <http://www.sdmcouncil.go.kr/source/korean/assembly>(검색일자. 2015. 8.4)
- 안선덕(2014). 「경기도 공공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방안」. 「2014년 제3차 GIA 포럼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안태운(2014). 『경기도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여성가족부(2006). 「200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_\_\_\_\_ (2007a). 「2006년도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
- \_\_\_\_\_ (2007b). 「2006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부(2008a). 「2008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 \_\_\_\_\_ (2008b). 「2007년도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
- \_\_\_\_\_ (2008c). 「2007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_\_\_\_\_ (2009a). 「2009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 \_\_\_\_\_ (2009b). 「200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2010a). 「2010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 \_\_\_\_\_ (2010b). 「2009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_\_\_\_\_ (2011a). 「2011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 \_\_\_\_\_ (2011b). 「201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_\_\_\_\_ (2012a).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 \_\_\_\_\_ (2012b).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_\_\_\_\_ (2013a).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 \_\_\_\_\_ (2013b).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_\_\_\_\_ (2013c). 「'농촌진흥청'. 「2013년('12년 실적) 성별영향분석평가 유공자 포상 및 우수사례 발표회 자료집」.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4a).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 \_\_\_\_\_ (2014b).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_\_\_\_\_ (2015a).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 \_\_\_\_\_ (2015b).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윤건수(2005). “전자정부의 딜레마: 항해의 메타포와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한국조직학회보』. 2(1). pp.73-99.
- 정형옥·박재규·조혜련·이가은(2010). 『경기지역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주경희(2011). “면접 담화에서의 대답방법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1. pp.643-645.
- 주혜진(2014).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방안」. 대전발전연구원.
- 채영희·이미지(2010).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한 한국어 교재 구성”. 『동북아문화연구』. 22. pp.109-121.
- 최유진·김둘순·이택면·문희영·이슬(2014). 「2014년 사업·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및 정책개선 결과보고서」(부록 1) 2014년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팅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한광식·강석훈(2011). “근대인물 문화재 가치창출을 위한 스토리텔링 방법”. 『서울도시연구』. 12(1). pp.107-126.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2015). 「여가부 선정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2005-2013)」. 내부자료.

## (2) 해외문헌

- Bacci, Carol(2009). “Gender Mainstreaming, Affirmative Action and Diversity: Politics and meaning in Gender Equality”. 「성 주류화의 이론과 실천」. 성 주류화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09. 9. 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2007). 『Gender Checklist』.
-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2013). 『Agricultural Development : Creating Gender-Responsive Agricultural Development Programs』. 2013 Annual letter.
- Gurung, Barun.&Menter, Harriet(2004). “Chapter 16. Mainstreaming Gender-Sensitive Participatory Approaches: The CIAT Case Study”. 『Scaling Up and Out: Achieving Widespread Impact through Agricultural Research』. CIAT.

Wende, Erik.&Haghirian, Parissa(2009). “Storytelling as A Tool For Knowledge Transfer in The IT Industry”. 「17th European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pp. 1-12.

Hanan, Carolyn(2008). “United Nations’ Gender Mainstreaming Stratiigy: Achievements and Challenges”. 「국제사회의 성 주류화 동향과 한국의 여성정책 전략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 25주년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08.4.2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Squires, Judith(2010). “The Implementation of Gender Mainstreaming in the UK : Assessing Process”. 「글로벌 시대의 성별영향평가, 어디까지 왔나 - 성 주류화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10.9.3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Status of Women Canada(2015). “What is GBA+?”. <http://www.swc-cfc.gc.ca/gba-accs/intro-en.html>(검색일자 2015.8.5.).

Verloo, Mieke(2001). “Another Velvet Revolution?: Gender mainstreaming and the Politics of Implementation”. IWM Working Paper. No.5.

### (3) 인터넷 자료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안내 <http://www.gfwri.kr/>(검색일자 2015.9.2.).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검색일자 2015.8.20.).

행정학 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7406&cid=42155&categoryId=42155>(검색일자 2015.9.10.).

### (4) 법령정보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5.2.3.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2015.8.4.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2000.01.10.제정)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2012.8.1.제정)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2015.8.14.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2001.12.21.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조례(2012.10.10.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Abstract

#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Policy Improvement through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with a Storytelling Method

Kyung-Hee Kim  
Hee-Jung Yoo  
Dool-Soon Kim  
Sol Lee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GIAA) has been operated in the Republic of Korea since 2005 and underwent a transition with the independent legislation of the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Act in 2011. Since the act came into force policies subject to GIAA have included legislation and basic plans as well as programmes, the range of analytical targets has expanded and hence, the number of targeted programmes has considerably increased. In some local areas ordinary citizen have participated in the monitoring and given feedback on the suggestions for policy improvement which were the outcomes of GIAA. This implies that the impact of GIAA on policy improvement is drawing

attention not only from civil servants but also residents in the local communities, and furthermore that a social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GIAA for the extension of gender equality has been growing. It also demonstrates that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level of participation and variety of actors putting the policy improvements of GIAA into practice.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process through which public bodies implementing the GIAA have selected GIAA-targeted programmes and attempted to improve policies accordingly, through an analysis of case studies of the operation process of GIAA with a storytelling method. Research methods include a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s with civil servants, experts, and activists in civil groups. Suggestions for policy improvement are offered as an outcome of this research, as outlined below.

Firstly, while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selection procedures of GIAA-targeted programmes by different public bodies, it has been found that the person in charge of GIAA in each body plays a decisive role in the selection of GIAA-targeted programmes. The selection procedures for GIAA-targeted programmes are critical to the achievement of policy improvements through GIAA, because when major policies highly relevant to gender and with big public impact are subject to GIAA the scope for policy improvement is so much greater. Therefore, it is essential that the civil servants in charge of GIAA in each organization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GIAA and undertake the role professionally. In this regard, it is recommended that each organization designate the role of the person in charge of GIAA as an expert position, implying a dedicated term of four years or longer, or otherwise recruit additional gender experts in order to ensure continuity and professionalism.

Secondly, it is critical that the civil servant in charge of writing-up the GIAA report has a good understanding of gender-sensitivity and the items of analysis and assessment. In order to draw adequate suggestions for policy improvements after a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gender differences existent in the GIAA-targeted programme it is important to provide in-depth training on gender-sensitivity to the person in charge. Also methods of consultancy need to be secured to ensure proper communication and mutual co-operation between civil servants and consultants.

Finally, it is put forward that policy improvements suggested as a result of GIAA need to be followed up continually for several years rather than for one year as present, and also that civil groups participate fully in the monitoring process. As long as the ultimate goal of GIAA lies in the achievement of gender equal society, the substantive outcomes should be evaluated according to how much the ordinary citizen can feel the changes of policy improvements. Hence the key evaluators of the outcome of policy improvements should not be the policy actors, but rather policy recipients, and storytelling methods provide an important tool with which to ensure their involvement.





2015 연구보고서(수시과제)-12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개선 활성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연구

2015년 9월 28일 인쇄

2015년 9월 30일 발행

발행인 : 이 명 선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전화 / 02-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02-313-7593 (代)

ISBN 978-89-8491-760-6 93330

<정가 10,000 원>